

“성경의 진리 위에 서서 절대불변 진리 수호해야”

한장총,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세미나 개최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선 목사, 이하 한장총)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를 신앙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세미나를 열고 한국교회의 분별과 대응을 촉구했다.

한장총은 최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세미나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한장총 서기 표성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한장총 여성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김영숙 목사가 기도했으며, 대표회장 이선 목사가 ‘머뭇머뭇 하려느냐’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선 목사는 열왕기상 갈멜산 사건을 언급하며 “엘리아가 ‘누가 참 하나님이나’를 묻고 결단을 요구했을 때 선지자들이 머뭇거렸다”며 “진리라면 즉시 하나님 편에 서야 했지만 결단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러 “무너진 재단이 방치된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참목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 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셨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문화적 관점에서 폭넓게 수용하려는 흐름이 있지만 핵심은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의 문제”라며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진리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변하지 말고 진리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조차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며 “진리를 배우고 각 교단이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예배는 한장총 총무 조세영 목사의 광고와 이선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어진 2부 세미나는 예정 개혁선교 총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장총

무 강동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범무법인 대표이사 ‘거룩한방과제 통합국민대회’ 전문위원장인 조영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조 변호사는 ‘교회여! 성경으로 차별

금지법을 막아라!’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양심, 학문과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법”이라며 “한국교회와 국민이 함께 깨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장총 대표회장 이선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한장총

다.

그는 특히 법안에 포함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개념을 지적하며 “법안에는 동성애나 성전환이라는 표현이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이러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

어 특정 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조차 차별로 간주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는 행위에 대해 죄라고 말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전도의 본질”이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이러한 신앙적 권면조차 차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는 각 종교가 자신의 교리를 근거로 타 종교의 교리를 비판할 자유가 있지만 법이 시행되면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신앙고백조차 종교차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세미나는 홍호수 목사(청예본 이사장)의 인사와 기도로 마무리됐다. 홍 목사는 오는 3월 28일 서울시의회부터 대한문 일대에서 열리는 ‘거룩한방과제 통합국민대회’를 소개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방과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예성 증경총회장회 모임 개최

교단 발전과 연합 위해 뜻 모아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증경총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증경총회장회는 최근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운양교회(담임 이상화 목사)에서 모임을 열고 예배와 회의를 진행했다.

1부 예배는 제103회 총회장을 지낸 김만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찬송가 310장을 함께 부르며 예배의 문을 열었고, 제87회 총회장을 역임한 백

병도 목사가 대표기도를 맡았다. 이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봉독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되새기는 시간이 이어졌다.

말씀은 제79회 총회장을 지낸 노태철 목사가 전했다. 노 목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단의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다’며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회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며 교단을 위한 기도와 헌신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예배는 제83회 총회장을 역임한 위광필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어진 2부 모임은 제97회 총회장이자



예성 증경총회장회가 단체사진 촬영에 임하던 모습. ©예성 총회

증경총회장회 회장인 윤기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교단의 주요 현안과 향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교단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증경총회장들은 모임을 마치며 하나님께서 교단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앞으로도 교회와 교단을 위해 기도와 조언으로 지속적으로 섬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노형구 기자

B E Y O N D
E N T E R T A I N M E N T
E L E V A T I N G
E X C I T E M E N T

일상 속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WALKERHILL
HOTELS & RESORTS

“세계여성의 날, 정치 구호 아닌 삶의 문제 중심 돼야”

위민앤패밀리, 성평등가족부·일부 여성단체 행보 비판

사단법인 위민앤패밀리(상임대표 이봉화)가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일부 여성단체와 정부의 행사 참여 행보를 비판하며 여성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위민앤패밀리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여성의 인간적 존엄과 권의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노력은 존중한다”면서도 “오늘 한국 사회에서 세계 여성의 날이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세계 여성의 날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 “이 날은 보편적 여성인권의 상징처럼 소비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20세기 초 노동사회주의 운동의 흐름 속에서 등장했다”며 “1910년 코펜하겐 사회주의 여성회의에서 클라라 제트킨 등이 국제적 여성의 날 제정을 제안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진보 여성단체들이 이러한 정치적 기원을 생략하기보다 오히려 정치

동원과 진영 구호의 장으로 38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올해 개최한 제41회 한국여성대회의 표어 ‘빛의 혁명을 완수하라!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를 언급하며 “여성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보다 정치적 상징과 운동 프레임이 앞서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행사 참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해당 행사에 참석해 축사한 모습은 정부가 특정 운동 진영의 언어를 공인하거나 후원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정부는 여성정책의 조정자여야지 특정 정치색을 띤 운동의 동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사례도 언급했다. 위민앤패밀리는 “북한의 38 국제부녀절은 여성 개인의 자유와 권리 확장보다 국가 발전과 체제 충성의 언어로 조직되는 경향이 있다”며 “여성 단원이 정치적 목적에 포획될 때 여성 역시 동원의 대상으로 전

락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활동이 북한의 국가선전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현재 한국 사회가 저출생과 가족 해체, 돌봄 위기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정책이 남녀 대립과 정치 구호 중심으로 흐르면 여성과 남성의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여성의 지위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향상됐다”며 “앞으로의 여성정책은 적대적 동원보다 실질적 안전, 일가정 양립, 돌봄 지원, 취약 여성 보호, 가족 안정 등 생활 문제 중심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민앤패밀리는 입장문 말미에서 정부의 정치적 행사 동원 중단, 전세계 여성의 날의 정치투쟁과 중단, 남북한의 여성 동원 구조에 대한 분명한 비판, 여성정책의 중심을 생명 존중과 가족 안정,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으로 전환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3월부터 성경적 생명윤리 공개강의 연다

한국 사회에서 낙태, 생명권, 성윤리 등 생명과 관련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경적 관점에서 생명윤리를 성찰하는 공개 강의를 마련된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생명윤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독교적 생명윤리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생명윤리 공개강의’를 진행한다

2026년 상반기 강의는 이승구 합신대 남송 석좌교수(협회 상임공동대표)가 맡아 ‘기독교 생명윤리와 생명윤리를 주제

로 강의한다. 강의를 총 3회로 진행되며, 각각 생명윤리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시각과 사회적 실천의 방향을 다룬다.

첫 강제는 “일반윤리와 기독교윤리”를 주제로 3월 16일 열리며, 이어 5월 18일에는 “기독교 생명윤리의 특성”, 6월 15일에는 “공적신학으로서의 생명윤리운동”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간다.

강의는 매회 오후 7시,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자평발정책연구소 세미나실(동작대로1길 10-14, 7층)에서 열린다. 장소는 해당역 8번 출구에서 약 100미터 거리에 있다.

협회는 이번 강의가 생명윤리에 대한 기초 이해뿐 아니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성경적 생명윤리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잡한 윤리적 논쟁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생명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공공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공개강의는 생명윤리와 생명윤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석 및 문의는 협회 사무총장 이길찬 목사(010-2599-5611, 3wvision@naver.com)에게 하면 된다. 노형구 기자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겨보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카카오 플러스 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카오 플러스 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강원도 기독교 선교 역사와 근대문화유산... 춘천·강릉·원주에 남은 복음의 발자취

한국교회총연합 '근대문화유산 탐방' 통해 강원 선교 현장 재조명... 한국 전도인 헌신과 교육·의료 선교 역사 확인

강원도의 험준한 산세와 깊은 골짜기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역이었다.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강원도는 마치 땅끝과 같은 먼 선교지였지만,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은 한국 전도인들의 헌신을 통해 이곳까지 전해졌다. 그 결과 강원도 곳곳에는 초기 선교 활동의 흔적이 남아있고, 이는 오늘날 다양한 기독교 근대문화유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되짚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근대문화유산 탐방'을 진행했다. '우리에게 근대 문화는 어떻게 왔을까'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탐방은 춘천, 고성 화진포, 강릉, 원주 등 강원도 주요 기독교 유산을 직접 찾아가 강원도 기독교 선교 역사와 근대문화유산의 의미를 살펴보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탐방단은 춘천에서 춘천중앙교회와 예수교병원, 과거 춘천읍교회였던 춘천미술관을 방문했다. 이어 고성 화진포에서는 셔우드홀문화센터와 선교사 휴양시설을 둘러봤고, 양양에서는 31운동 만세 기념비를 찾았다. 강릉에서는 강릉중앙교회를 방문했으며, 원주에서는 연세대학교 원주과대학 일신사료관을 살펴보고 강원도 기독교 선교 역사와 근대문화유산의 흐름을 확인했다.

특히 강원 지역 선교의 특징은 한국 전도인들의 헌신적인 역할에 있었다. 1898년 미국 남감리회 한국 최초 선교사인 리드(C. F. Reid)는 춘천과 강원 지역 선교를 위해 권사인으로 불렸던 매사인을 파송하며 강원 선교를 시작했다. 매사인은 성경을 판매하며 복음을 전하던 전도인으로, 험준한 산길을 넘어 강원도 곳곳을 찾아다녔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 작은 신앙 공동체가 형성됐고, 이러한 모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로 성장하며 강원도 기독교 선교 역사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인 김정석 감독은 이번 탐방의 의미에 대해 강원도 기독교 선교 역사와 근대문화유산이 지닌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강원 지역이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비교적 늦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지역 교회들이 교육과 의료, 농촌 계몽, 지역사회 섬김을 통해 신앙의 토대를 꾸준히 세워 왔다고 말했다. 또한 초기 교회 공동체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사역이 지역사회 발전과 맞물리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 선교의 시작점이 된 춘천

춘천 도시에 자리한 춘천중앙교회 뒤편 공원은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사면 23편 1절 성경 구절이 새겨진 묘비가 세워져 있다. 이 묘비는 강원도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덕수 전도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묘비 양옆에는 이 전도사의 생애를 소개하는 안내 표지석과 함께 1905년 초가 예배당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설치돼 있다. 류지성 춘천중앙교회 부목사는 이덕수 전도사에 대해 과거 술과 도박에 빠져

살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은 뒤 삶이 변화됐고 선교사의 눈에 띄어 춘천으로 파송돼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강원도는 산세가 험하고 교통이 불편해 외국인 선교사들이 직접 선교 활동을 펼치기 쉽지 않은 지역이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자인 전도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이덕수 전도사는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 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교회 입구에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비석과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다. 이는 춘천중앙교회의 신앙 전통과 역사적 의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다.

춘천 선교 역사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분야는 의료 선교였다. 20세기 초 선교사들이 설립한 춘천 예수교병원은 당시 지역 의료 선교의 중심 역할을 했다. 이 병원은 1926년 문을 닫았지만 이후 건물이 개조되어 예배당으로 사용되면서 교회 역사 속에 남게 됐다.

교회사 연구자인 홍승표 연세대학교 교수는 이덕수 전도사가 넓은 땅을 매입해 선교 기지를 조성했고 그곳에 춘천을 교회와 예수교병원, 춘천 여자 사회관 등 근대 시설이 들어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춘천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붉은 벽돌 건물 역시 선교 역사와 연결된 건물이다. 이 건물은 1955년 미국 감리회 선교부 병원으로 사용되던 춘천중앙교회 본당이었다. 이후 춘천시에 매각됐지만 교회의 요청에 따라 건물이 훼손되지 않은 채 보존됐고 현재는 시립미술관으로 활용되며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문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선교사들의 휴식과 사역 준비 공간 화진포

동해안 절경으로 유명한 고성 화진포에는 과거 선교사들이 머물며 사역을 준비했던 휴양 시설이 남아 있다. 해안 절벽 위 송림 속에 자리한 이 시설은 선교사들이 휴식을 취하며 선교 활동을 논의하고 사역을 준비하던 장소로 알려져 있다.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의료 선교사였던 로제타 셔우드 홀과 윌리엄 제임스 홀 부부가 독일 건축가 베버에게 의뢰해 건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 성을 연상시키는 외관 때문에 '화진포의 성'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후 1948년부터 1950년까지는 '김일성 별장'으로 사용되면서 또 다른 역사적 흔적을 남겼다.

현재 건물 내부에는 홀 부부의 선교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영상이 전시돼 있다. 또한 한국전쟁 이전 김일성 별장의 모습을 재현한 전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건물 주변 전망대에서는 화진포 앞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이곳 송림에서는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미니 골프 연습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콘크리트로 조성된 다양한 형태의 골프 연습 시설이 남아 있어 당시 선교사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홍승표 교수는 당시 선교사들이 열악



춘천중앙교회에 있는 이덕수 전도사 묘비 ©한국교회총연합

한 의료 환경과 전염병 위험 속에서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여름철에는 비교적 쾌적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가족과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주 5일 근무와 같은 생활 문화 역시 기독교 선교의 영향 속에서 형성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화진포에는 홀 부부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셔우드홀문화센터도 자리하고 있다. 홀 부부는 한국에서 결핵 퇴치 운동을 펼치고 크리스마스 썰을 보급하는 등 의료 선교 활동에 헌신한 인물들이다.

문화센터에는 로제타 셔우드 홀이 남긴 기행 편지와 여권,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 홀이 아펜젤러 목사에게 보낸 편지 등 선교 활동과 의료 사역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가 전시돼 있다. 김정석 감독은 이들 선교사가 한국 의료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이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여성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자유와 평등, 여성 인권의 확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교육과 독립운동으로 이어진 강릉·양양 선교

둘째 날 탐방은 양양에서 시작했다. 이 지역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는 남궁억 장로는 1907년 양양에 현산학교를 세워 교육을 통한 계몽 운동을 펼쳤다.

현산학교에서는 신문물과 함께 자유와 평등 사상,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함께 가르쳤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한 학문 교육을 넘어 민족 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학교 출신 청년들은 이후 1919년 31운동 당시 지역 만세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활동했다.

강릉과 양양 지역에서는 31운동 소식이 늦게 전달되면서 만세운동이 4월에 일어났다. 1919년 4월 2일 강릉중앙교회 담임이었던 안경록 목사는 지역 청년들과 협력해 만세운동을 조직했다. 강릉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이후 양양 지역으로 확산됐다.

홍승표 교수는 현산학교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이 민족 의식을 바탕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며 남궁억 장로의 교육 활동이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양양 만세운동이 강원 지역 만세운동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격렬했던 사건 가운데 하나였으며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강릉중앙교회에는 초기 교회의 흔적을 보여주는 초석과 종이 지금도 남아 있다. 이 종은 1924년 안경록 목사가 교회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태환 강릉중앙교회 담임목사는 초기 외국인 선교사들이 강릉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가정집을 빌려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당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안경록 목사가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세우면서 강릉 지역 교회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당국이 교회 종과 대문을 철거해 갔지만 교인들이 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

울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모습이 당시 교인들의 강한 민족 의식과 신앙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교육과 의료 선교 중심지 원주

원주는 강원 지역에서 교육과 의료 선교의 중심 역할을 했던 도시로 평가된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병원과 학교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접촉하며 복음을 전했고 이러한 활동은 지역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쳤다.

원주에 남아 있는 기독교 유산들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헌신과 지역 교회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로 평가



셔우드홀문화센터에서 설명하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한국교회총연합

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유산은 현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모체가 된 서미감병원이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일신사료관 건물은 1918년 선교사 모리스가 거주 목적으로 지은 양관 건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선교사 거주 안에는 여러 건물이 있었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며 대부분 파손됐고 이후 병원 확장 과정에서 철거됐다. 현재 남아 있는 이 건물은 당시 선교사들의 생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건물로 평가된다.

건물 1층에는 초기 교회 모습을 담은

사진과 의료 선교사들의 활동 기록, 그리고 1925년 원주읍교회 예배당에 걸려 있었던 '호랑이 자수 액자' 등이 전시돼 있다. 2층에는 해방 이후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사용된 협합 측정기와 원심분리기, 제세동기, 초음파 물리치료기 등 다양한 의료 기구가 전시돼 있어 의료 선교의 역사를 보여준다.

강원도 곳곳에 남아 있는 기독교 근대 문화유산은 복음 전파와 함께 교육, 의료, 사회 변화가 함께 이루어졌던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는 역사적 흔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지동 기자

당신 주변에는 LS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뒤에는 LS가 있습니다

Everywhere you live and work

LS

<전력 공급 및 제어 시스템> <해저 전력케이블>



안경록 목사 동상. ©뉴스1

예심선교회 '9·1DAY 전도축제 대한민국 전도부흥회' 개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들' 주제로 13일간 집회 진행... 전국 지부 참여 속 전도 사명 회복 강조

사단법인 예심선교회(대표 김기남 목사)가 한국교회의 전도 사명을 회복하고 복음 전도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9·1DAY 전도축제 대한민국 전도부흥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9일부터 21일까지 경기 부천시 성오로에 위치한 예심교회에서 진행됐으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중계를 병행해 전국 예심선교회 지부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열렸다.

이번 '대한민국 전도부흥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성경 사도행전 이후에도 복음 전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어가는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집회가 진행됐다.

예심선교회는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목표로 다양한 전도 사역을 펼치고 있는 선교단체다. 선교회는 '구원데이'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초대교회와 같은 전도 사명을 회복하도록 돕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전도법 사역과 미래 목회를 준비하는 종합 목회 코칭, 히브리식 사고를 바탕으로 한 성경 해석 교육, 성경 교육 과정인 성경박사원, '하야통삼' 사역 등을 통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고 있다.

◆대한민국 전도부흥회 개막 예배



'9·1DAY 전도축제 대한민국 전도부흥회' 현장의 모습. ©예심선교회

집회 첫날 예배는 김정례 목사의 사회와 한종석 목사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이어 '대한민국 전도부흥회' 소개 영상이 상영된 뒤 김봉선 전도사가 대표 기도를 말했다.

강신권 미국 코헨신학대 설립총장은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그는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행하실 일을 기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총장은 또 성경의 중요한 예언은 '오늘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며, 혼란한 시대일수록 성경 말씀을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오늘'이라고 말하며 믿음의 현재성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도 사명 회복 위한 13일간 집회

이번 대한민국 전도부흥회 기간 동안에는 매일 다양한 강사들이 말씀과 간증을 전하며 집회가 이어졌다. 10일 박영철 목사를 시작으로 11일 한유도 목사, 12일 최현 목사, 13일 장여옥 장로, 14일 지성희 목사, 15일 김은숙 권사, 16일 김길재 목사, 17일 도바울 선교사, 18일 이상복 목사, 19일 이하가 장로, 20일 임병돈 목사, 21일 신근안 권사가 차례로 말씀과 간증을 전하며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기남 목사는 이번 집회의 핵심 사역으로 '9·1DAY' 전도운동을 소개하며, 이 운동이 시대적 필요 속에서 시작된 전도 문화운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19 이후 한국교회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의 전도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또 지난 20여 년 동안 '예수의 마음 전도법' 사역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도 사명을 다시 깨닫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섬김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전도 사역을 돕고 복음 전파 운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9·1DAY 전도축제 대한민국 전도부흥회'는 복음 전도 운동의 확산과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목표로 마련된 집회로, 전도 사명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장지동 기자

한일장신대-완주군, 교육발전특구 대학 연계 사업 업무협약 체결

4개 대학 참여 지역 상생 모델 구축... 특화 교육과정 지원·미술 치유 힐링 프로그램 운영 확대

한일장신대학교(총장 황세형)가 완주군, 백제예술대학교, 우석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등 4개 대학과 '교육발전특구 대학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완주군은 얼마 전 군청에서 기전대학

이런 협약은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완주군은 대학별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참여 대학들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일장신대학교는 2025년부터 교육발전특구 사범 사업의 일환으로 '미술 치유'를 통한 편백 숲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자연 친화적 환경에서 미술 치유 활동을 접목한 이 프로그램은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돕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는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들이 양질의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한일장신대-완주군 업무협약식 기념 사진. ©한일장신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장신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과 돌봄, 치유 사역을 확장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장지동 기자

창호의 프레임을 새롭게
뷰:프레임

— 퍼펙트 슬림뷰 :
베젤리스 설계

— 클리어 옛지뷰 :
논실리콘 디자인

— 멀티플 화이트뷰 :
다양한 화이트 톤 소재

1 2024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창호 부문 최다위(8위)
LX Z:IN 창호

LX Z:IN

목원대, 김진태 목사로부터 '하나됨의 십자가 토닥토닥' 기증받아

목원대학교는 보문감리교회 담임목사이자 학교법인 감리교회원 이사인 김진태 목사로부터 작품 '하나됨의 십자가 토닥토닥(장동근 작)'을 기증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진태 목사를 비롯해 이희학 목원대 총장, 홍현선 목원대 목회교육원 원장, 이금재 발전협력실장 등이 참석해 작품 기증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김진태 목사는 "이 작품이 목원 공동체 안에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하나됨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매개가 되길 바란다"며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축복을 풍성히 누리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기증받은 작품은 대학 구성원 간 화합과 위로, 공동체 정신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어 목원대의 기독교 정신과 대학이 지향하는 공동체 가치가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학 총장은 "목원대를 향한 사랑과 공동체를 향한 따뜻한 응원이 담긴 귀한 나눔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작품에 담긴 하나됨과 위로의 메시지가 목원 구성원에게 울림을 전하고, 서로를 토닥이며 함께 걸어가는 대학 문화를 더욱 굳건히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증 후 기념촬영에 임한 관계자들의 모습. ©목원대

한편 보문감리교회는 1954년 12월 첫 예배를 진행한 이후 70년 넘게 대전에서 이웃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해 왔다. 최승연 기자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 수사 확대... 합수본, 전직 간부 소환 조사

이만희 총회장 법무비 모금 과정 확인... 개인 계좌 통해 200억 원대 후원금 모금 정황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가 교단 재정과 관련된 핵심 인물을 소환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당국은 교단 자금 관리와 법무비 모금 과정에 관여한 전직 간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동수사본부는 최근 전 시군구교선교센터 총원장 탄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합수본은 김태훈 대전교감장(사진)이 본부장을 맡아 사건 전반을 지휘하며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씨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이만희 총회장이 방역 방역 협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시기 법무비용 모금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주목됐다. 당시 교단 내부에서는 총회장의 법률 대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후원금 모금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법무비 마련 과정에서 개인 계좌가 활용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교단 원년이 교회 재정을 직접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금 모금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교단 간부들이 신도들에게 후원을 요청했고 후원금은 특정 개인 계좌로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탄씨의 계좌가 모금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 당국은 자금 흐름과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교단 측은 1인당 후원 금액이 49만 원을 넘지 않는 방식으로 모금을 진행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모인 후원금 규모는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이번 조사에서 후원금이 어떤 방식으로 모였는지와 실제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후원금 횡령 가능성과 보조 로비 의혹 등과 관련된 정황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참고인 조사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추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향후 관련자들에게 대한 조사와 자금 추적을 통해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과 법무비 모금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갈 전망이다. 박용국 기자

“이란 전쟁 개시한 트럼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위한 하나님의 소명’”

이훈근 박사, 10일 에스더기도운동본부 40일 금식 성회서 강의

국제정치학자이카데미 대표 이훈근 박사는 최근 에스더기도운동본부에서 열린 40일 금식 성회에서 ‘이란 전쟁 해설 : 기독교적 관점’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자유는 기독교적 개념이며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 문명 속에서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기독교를 믿는 나라 대부분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이며 자유의 확산은 인류의 진보를 의미해 왔다”며 “독재자 입장에서 기독교는 체제를 위협하는 반동 종교이기 때문에 독재 정권에서는 항상 압초가 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네덜란드 정치가이자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을 인용하며 “카이퍼는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고무시키는 자들은 만군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 자들’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인용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건설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미국의 건국 정신 역시 이러한 자유 개념 위에 세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조인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를

을 선언했고 이를 억압하는 정부에 대해 시민 저항권을 헌법에 명시했다”며 “미국은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 것을 하나의 소명으로 인식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세계의 경찰로서 자유를 신장하고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생각해 왔다”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은 언제라도 언덕 위의 빛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인식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중국이며, 중국이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트럼프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을 제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는 중국을 세계 최대의 무신론 독재 국가라고 규정했다”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 손과 발 역할을 하는 독재 국가 이란을 공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



이훈근 박사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책 수행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를 향한 인간의 욕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란의 자유를 지지하라”고 발언한 사례도 소개했다. 또 이란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됐으며, 히잡 착용을 강제하는 이슬람 체제 아래서 여성들이 차별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도 언급했다. 그는 “전쟁 개시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에 집중했다”며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또 “이슬람 혁명수비대 장군들도 대부분 제거되면서 전쟁 초기 단계에서 ‘백의마리’를 자르는 전략이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제거해 집중했다면 미국은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제거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란이 중국과 북한 등에 제공했던 미사일과 드론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 방어망 앞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유가가 폭등하고 미국이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기준 이란 해군이 보유했던 32척 군함은 전멸 상태에 이르렀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 초기부터 이란의 군사력을 빠르게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가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도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의해 봉쇄돼 유조선 출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 공포 때문에 유조선들이 스스로 해협 통과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운량이 줄어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유가가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교통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영향을 받았고 유가가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유가는 전쟁 우려로 한때 급등했지만 이후 하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 박사는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국이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상황은 아니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란의 기독교 상황을 언급하며 “이란 인구 약 9천만 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약 50만 명 정도지만 그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신정 체제가 무너지면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박사는 스탠퍼드대 역사학자 빅터 데이비스 헨슨의 분석도 소개했다. 그는 “헨슨 교수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 기독교는 산상수훈의 관용을 강조하지만 이슬람은 근본주의적 성격을 토대로 학살과 무자비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이란 전쟁을 끝으로 이슬람과 기독교의 역사적 반목에서 기독교가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앙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조찬기도회에서 ‘우리는 미국을 하나님 아래 있는 하나의 나라로 하나님께 봉헌할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4년 암살 시도 이후 트럼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고 고백했으며 목회자들이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함께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이크 허커비 미국 주이스라엘 대사의 발언을 소개했다. 허커비 대사는 “이스라엘을 등진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창세기 12장 3절)를 언급했다고 이 박사는 전했다.

노형구 기자

기아대책, 레바논 무력 충돌 긴급구호 착수... 이재민 3천 명 지원

레바논 무력 충돌 대응 긴급구호...생필품 지원과 후원 캠페인 진행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인 희망진구 기아대책이 최근 중동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무력 충돌로 피해를 입은 레바논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구호 활동에 나섰다. 레바논 곳곳에서 공습과 충돌이 이어지면서 민간인 피해와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아대책은 현지 파트너 기관과 협력해 긴급 인도적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아대책에 따르면 이번 긴급구호는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레바논 남부와 베이루트 인근 지역까지 공습이 확대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보도가 나온 이후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면서 레바논 일부 지역에서도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레바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123명이 사망하고 68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베이루트 남부 등 주요 지역에서는 약 50만 명의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지며 인도적 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레바논 긴급구호 추진... 이재민 3천 명 대상 생필품 지원

기아대책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레바논 현지 인도적지원 전문기관인 MERATH(Middle East Revive & Thrive)와 협력해 긴급구호 사업을 진행

하기로 했다.

이번 레바논 긴급구호는 약 1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약 3,000여 명의 이재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물품에는 담요와 배개 등 침구류를 비롯해 식량과 위생 키트 등 필수 생필품이 포함된다.

구호 물품은 분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주요 지원 지역은 베이루트와 마운트 레바논, 베카 계곡, 남부 레바논, 북부 레바논 등 충돌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지역이다.

기아대책은 현지 파트너 기관과 협력해 긴급구호 물품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이재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후원 캠페인 통해 레바논 긴급구호 참여 확대

기아대책은 긴급구호 활동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후원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레바논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단체에 따르면 약 10만 원의 후원금으로 전쟁 피해를 입은 한 가정에 필요한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후원금은 침구류와 식량, 위생용품 등 기본적인



기아대책이 중동 분쟁 격화로 피해를 입은 레바논 주민들을 위해 긴급구호 지원에 나섰다. ©기아대책

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기아대책은 레바논 긴급구호 활동을 통해 분쟁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달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아대책 최창남 회장은 레바논 무력 충돌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최 회장은 “갑작스러운 무력 충돌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기아대책은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피해 주민들이 최소한의 안전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아대책은 앞으로도 레바논 긴급구호 활동을 지속하며, 현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지상과 방송 신뢰 회복 시급... 정직한 보도·고품질 콘텐츠 필요”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최근 지상과 방송의 시청률과 광고 수익 감소 현상을 지적하며, 방송이 신뢰 회복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11일 발표한 논평에서 “방송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시대는 지나갔다”며 “지상과 방송이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실성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제작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회에 따르면 지상과 뉴스 시청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KBS 메인 뉴스의 경우 1998년 시청률이 24%였지만 2014년 17.2%, 2021년 9.9%로 떨어졌고, 올해 3월 8일에는 4.7%를 기록했다. 광고 수익 역시 크게 감소했다. 지상과 방송의 전체 광고 매출은 2005년 2조 4021억 원에 달했으나 현재는 1조 원을 넘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론회는 설명했다.

또한 올해 미디어별 광고 수익 비중에서 디지털 매체(유튜브·인스타그램·검색 광고 등)가 6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방송(TV·라디오·케이블)은 17.8%에 그쳤다. 옥외광고는 10.5%, 신문은 5.8%, 잡지는 1.7%로 나타났다. 과거 광

고 시장을 주도했던 방송이 디지털 매체에 주도권을 내준 셈이다.

언론회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방송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지목했다. 한 시사잡지의 2025-2026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송 신뢰도는 KBS 11.2%, MBC 22.0%, SBS 4.8%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유튜브는 8.6%를 기록했다.

언론회는 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신뢰 회복과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제시했다. 언론회는 “불편부당한 정확한 뉴스, 자연 다큐멘터리, 재난 방송, 공정해설 선거방송, 역사 다큐멘터리, 대형 프로젝트 프로그램 등 개인 방송이나 저비용 제작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디지털 세대를 위한 질문: 2026년, 아날로그 삶으로 돌아갈 때인가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라라 딘의 기고글인 '2026년이 디지털을 벗어나 아날로그 삶으로 돌아가는 해가 될까?(Is 2026 the year to go analogue?)'를 5일(현지시간) 게재했다.

라라 딘은 2025년 '비잉 휴먼(Being Human)' 프로그램의 졸업생으로서 복음주의 연맹(Evangelical Alliance)에 합류했다.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창작 산업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그는, 미디어를 통해 삶의 중요한 질문들을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요즘 필자의 소셜미디어 피드를 보면 같은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친구들이 하나같이 '아날로그 삶(analogue life)'을 실천하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들은 SNS 계정을 잠시 닫고 디지털 세계 대신 물리적인 활동으로 돌아가고 있다. 전자책 대신 종이책을 읽고, 스마트폰 메모 앱 대신 공책을 사서 글을 쓰며, 화면을 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취미 활동에 투자한다.

사실 이런 흐름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소셜미디어의 즐거움과 흥분뿐 아니라 그 어두운 면까지 처음으로 경험한 세대인 우리는 이제 어느 순간 그 세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저 화면을 스크롤하며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대신, 더 적극적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고 싶다. 진짜 중요한 것들과 연결된 삶을 원한다. 필자의 친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지만, 필자는 소셜미디어 관련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 세계와 아날로그 삶 사이의 이 긴장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

소셜미디어에서 로그아웃하는 것은 분명 여러 이점을 가져온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불안감이 줄어들며, 머릿속이 더 맑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의지력만으로 갑자기 SNS를 끊는다고 해서 삶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조지타운대학교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칼 뉴포트(Cal Newport)는 그의 책 『디지털 미니멀리즘(Digital Minimalism)』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소개한다. 그는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30일간 소셜미디어를 완전히 끊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

합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들은 단순히 SNS를 끊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다른 활동으로 채웠다. 친구들과 직접 만나 시간을 보내고, 예전에 즐기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며, 하루의 생활 구조를 새롭게 만들었다.

그래서인지 필자의 피드에는 요즘 콘텐츠 창작자들이 아날로그 활동을 장려하는 영상이 가득하다. 예를 들어 시에스 캠프(Siege Campbell)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소셜미디어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다양한 아날로그 활동을 권한다. 퍼즐이나 잡지, 뜨개질 도구 등을 담은 '아날로그 가방'을 만들기도 하고, 레고를 조립하거나 나서를 하거나 일기를 쓰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한다.

필자 역시 이런 활동들을 좋아한다. 잠시 휴대폰에서 벗어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퍼즐이나 공예를 아무리 좋아해도 결국 어느 순간 다시 휴대폰으로 돌아가게 된다. 필자에게는 그보다 더 깊은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세상에 물든 정체성과 피로함

필자의 정체성은 점점 세상에 물들어 가고 있었고, 그로 인해 마음은 지쳐 있었다. 그래서 한동안 소셜미디어를 완전히 끊어 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필자는 약 12년 전부터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만들어 왔다. 처음에는 블로그로 시작했고, 이후 여러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작업 포트폴리오를 쌓아 갔다. 처음에는 매우 재미있고 실험적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창작 산업에 들어가기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생산성 경쟁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두 배로 열심히 일해도 결과는 절반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 모든 것의 기반에는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필자의 정체성은 점점 세상의 기준에 물들어 갔고, 결국 완전히 지쳐 버렸다. 그래서 SNS를 끊어 버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필자의 마음을 다시 다루기 시작하셨다.

◆소셜미디어가 만들어 준 공동체

아 이러니하게도 소셜미디어는 필자에게 공동체



©chatGPT

를 만들어 준 공간이기도 했다.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기도 모임에 참여했고,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가 되었다. 또 서로의 기쁨을 축하하고 어려움을 격려하는 관계도 생겼다.

소셜미디어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복음 전도의 가능성이다. 오늘날 많은 Z세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독교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그들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검색하고 탐색하며, 무엇인가 더 깊은 것을 찾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현대판 아고라(agora)와 같다. 이는 사도행전 17장 16-17절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상황과 비슷하다. 바울은 도시가 무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시장에서 철학자들과 유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토론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곳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 인간의 운명에 대해 논쟁하던 지적 토론의 중심지였다.

오늘날의 소셜미디어도 때때로 그런 공간처럼

느껴진다. 단 1분 사이에 전 세계 뉴스, AI 이미지, 고양이 영상, 뉴에이지 영상, 로봇 신앙, 생산성 전문가의 조언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게 된다. 모두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내놓는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온라인 공간에 존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혼란을 가르고 평안과 새로운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사명은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온라인 공간에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이웃과 친구를 직접 만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다. 때로는 두 방식이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부르심을 주셔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좋은 소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보여 주신 새로운 시간

필자는 여러 번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했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실험

해 보았다. 심지어 소셜미디어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기도 했다. 불안과 우울, 상실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항상 온라인 상태로 살아야 하는 삶의 피로함을 보면서 "왜 내가 이런 어두운 세계의 일부가 되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판매하는 삶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자의 마음을 바꾸셨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마음을 배우게 하셨다. 그리고 필자가 어둠을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팔로워 수나 참여율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도, 그것을 내려놓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불완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온전히 사랑하신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에서

소셜미디어 자체는 본질적으로 선도 악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도구일 뿐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필자는 이렇게 권하고 싶다. 앱을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일을 반복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질문해 보라: "하나님, 저는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 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민감하게 살펴보고,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책임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결국 문제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다. 소셜미디어에 완전히 몰입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아날로그 삶을 시도하다 다시 휴대폰을 집었다고 스스로를 실망하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한다.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쁨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2026년이 아날로그 삶으로 돌아가는 해가 될지 여부를 고민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승연 기자

장상길 목사, 애틀랜타 한인교회 순회 부흥집회 인도

“예배·기도·복음 회복될 때 교회 다시 살아난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 한인교회들을 중심으로 장상길 목사(인천 송도주사랑교회 담임)가 오는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순회 부흥집회를 인도한다. 이번 집회는 애틀랜타

지역 교회들의 영적 각성과 복음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Worship·Pray·Gospel(예배·기도·복음)”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집회는 교회별 초청 형식으로 열리며, 지역 한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가 단순한 강사 초청 행사에 그치지 않고,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고 복음을 다시 불드는 영적 회복 운동의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장 목사는 집회 기간 동안 살롬 월드 미션,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애틀랜타 더 드림 교회 등에서

말씀과 기도 사역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이번 집회의 핵심 메시지로 교회가 다시 예배와 기도,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목사는 “오늘 교회가 불붙어야 할 것은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예배와 기도,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라며 “교회가 예배자로 서고 성도들이 기도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주 한인교회가 단순한 이민 공동체를 넘어 세계 선교를 위한 중요한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목사는 “하나님께서 한인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의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다”며 “이번 집회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 목사는 특히 집회 이후에도 각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한 사람, 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시와 민족을 새롭게 하신다”며 “이번 집회가 애틀랜타 지역 교회들 안에 지속적인 기도운동의 불씨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집회는 3월 11일 살롬 월드 미션을 시작으로 15일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20일부터 22일까지 애틀랜타 더 드림 교회에서 이어진다. 김진영 기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 ☞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 ☞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 ☞ 안정적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검색하세요!

“개도국 아동 및 이슬람 선교, 지역교회 영향력 확대 등 위해 기도 요청”

한국선교연구원(KRIM) 세계 선교 기도 제목

◇기독교 NGO, 아동 후원 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 필요해져

국제 개발 현장에서 아동 후원 제도를 둘러싼 재검토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기독교 기반 NGO들 역시 지원 방식 전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에는 전통적인 1:1 아동 후원 모델 폐지를 목표로 하는 액션에이드(ActionAid)의 사례가 실렸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방식이 서구 기부자와 개발도상국 아동 사이의 권력 불균형을 재생산한다고 보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도 개별 아동 중심 후원에서 지역사회 전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전환한 이유로 운영 비용 증가와 복합 위기 상황에 대한 유연성 부족을 제시했다. 반면 컴패션(Compassion) UK는 아동 후원 방식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지역교회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돌 때 오히려 공동체를 강화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혜자였던 우간다 출신의 완데라(Richmond Wandera) 박사는 지역교회와 연계하여 가정 후원이 이루어진 경우 기대효과와 영향력이 더 증가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결국 쟁점은 후원 제도의 존폐가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가지며 어떤 구조 속에서 사역이 이루어지는가에 달려있는 듯하다. 기독교 NGO들이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고 단순한 기부 관계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존엄과 주체성을 세우는 동반자적 사역으로 재정립해 나가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christiandaily.com, www.theguardian.com)

◇지난 2년간 54개국에서 인터넷 차단 300건 이상 발생해

1월 20일, 유네스코(UNESCO)는 온라인 연결이 민주적 참여와 기본권 행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54개국에서 시위, 선거,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 차단이 300건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는 액세스 나우(Access Now)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2024년이 2016년 이후 인터넷 차단이 가장 심했던 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추세가 202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대규모 시위나 선거를 앞둔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전면적인 봉쇄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6년 1월, 이란 당국은 반정부 시위에 대응하여 전국적인 대규모 인터넷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탈레반 정권은 2025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인도주의 활동, 언론 활동, 교육 접근성이 더욱 제한되었으며, 특히 여성과 소녀들의 교육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다. 네팔 당국은 정치적 불안 속에서 2025년 9월에 26개의 소셜미디어 및 메시징 플랫폼 접속을 차단했다. 스리랑카에서는 2024년에 제정된 법률이 온라인 콘텐츠를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언제든지 디지털 시민 공간이 축소될 우려를 낳았다. 아프리카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허위 정보 유포 차단을 목적으로 종종 인터넷이 차단되었다. 2025년 10월에 카메룬과 탄자니아에서, 2026년 1월에는 우간다에서 인터넷 차단으로 시민의 자유가 억압됐다.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제한을 위해 폭력과 억압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그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 나라들이 투명한 정부 운영과 국민의 온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 사회로 발전해 나가도록 기도하자. (출처 news.un.org)

려했다. 2026년 1월, 이란 당국은 반정부 시위에 대응하여 전국적인 대규모 인터넷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탈레반 정권은 2025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인도주의 활동, 언론 활동, 교육 접근성이 더욱 제한되었으며, 특히 여성과 소녀들의 교육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다. 네팔 당국은 정치적 불안 속에서 2025년 9월에 26개의 소셜미디어 및 메시징 플랫폼 접속을 차단했다. 스리랑카에서는 2024년에 제정된 법률이 온라인 콘텐츠를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언제든지 디지털 시민 공간이 축소될 우려를 낳았다. 아프리카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허위 정보 유포 차단을 목적으로 종종 인터넷이 차단되었다. 2025년 10월에 카메룬과 탄자니아에서, 2026년 1월에는 우간다에서 인터넷 차단으로 시민의 자유가 억압됐다.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제한을 위해 폭력과 억압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그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 나라들이 투명한 정부 운영과 국민의 온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 사회로 발전해 나가도록 기도하자. (출처 news.un.org)

◇글로벌 위기 극복, 손실 복구에서 사랑에 대한 투자로 전환할 때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은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자본이 부족할 것이 아니라 그 자본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지역에 연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엔개발계획은 컨설팅 회사 맥킨지(McKinsey)의 자료를 인용해, 전 세계의 부는 현재 600조 달러를 넘어섰지만 개발도상국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연간 4조 3천억 달러의 재정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2026년을 맞이하면서 국제 연대 강화, 국내 자원 동원, 민간 부문 자금 조달 활성화라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 유엔 개발계획은 사람에 대한 투자에 손실 복구 차원의 접근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고 강조한다. 헬스애퍼어(Health Affairs)의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 예방접종에 1달러를 투자할 때 임금 손실이나 질병 치료 비용 52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UNDP 자체 분석 결과, 재난 위험 감소에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복구 및 정화 작업과 관련된 경제적 손실 7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폭력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데 1달러를



액션에이드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1:1 아동 후원 모델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서구 기부자와 개발도상국 아동 사이의 권력 불균형을 재생산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ActionAid

투자할 때마다 세계는 위기 대응에 소모되는 16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기후 변화 대응에 투자되는 1달러당 12달러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인류의 건강, 재난 대비, 분쟁 예방 등에 있어 사람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이타적인 행위가 아니라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과감한 투자인 셈이다. 전 세계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고, 특히 가난한 나라와 저개발 국가에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undp.org)

◇이슬람 국가들, 2월 18일부터 한 달간 라마단 금식 시작해

전 세계 무슬림에게 금식의 달인 라마단은 쿠안이 무함마드에게 처음 계시되었다고 믿는 시기를 말한다. 2026년에는 이슬람 월력에 따라 2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라마단 금식이 진행된다. 무슬림들은 알라에 대한 더 높은 차원의 경외심을 얻기 위해 낮 시간 음식과 음료를 피하고, 흡연과 성관계 등을 절제한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은 무슬림이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이 시기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30년 전에 시작됐다. 현재 30일 기도운동 책자는 30개 언어로 번역되어 40개국에 배포되고 있다. 2026년에 제작된 기도 책자는 특별히 무슬림배경인자(MBB)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때 무슬림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소개한다. 이슬람이 다수 종교인 각 나라를 위한 기도와 함께 그 나라 출신의 무슬림배경인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위해 직업을 내려놓고 전일 사역자로 헌신했고, 또 어떤 이들은 직장과 가정에 남아 신실한 증인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다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는 삶 속에서 여전히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30일 라마단 금식에 맞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을 위해 중보하고, 특별히 이 기간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 공동체와 개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한 증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pray30days.kr, www.aljazeera.com)

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다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는 삶 속에서 여전히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30일 라마단 금식에 맞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을 위해 중보하고, 특별히 이 기간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 공동체와 개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한 증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pray30days.kr, www.aljazeera.com)

◇북미 Z세대 선교관심자, 파송 결정 앞두고 대화와 조인 필요로 해

선교 동원 및 훈련 기관인 가스펠 모빌라이제이션(Gospel Mobilization)에서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선교단체에 연결된 선교관심자 2,4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단체의 부대표인 화이트(Katy White)는 지난 1월 선교저널 EMQ에 기고하면서, Z세대 선교관심자들이 파송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대화와 조인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Z세대들이 선교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부담감과 걱정으로는 명확한 지침의 부족과 방향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50%)이 꼽혔다. 그 다음으로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느낌(36%), 외로움과 고립감(35%), 가족이나 친구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32%), 모호한 역할(30%) 등으로 나타났다. 화이트 부대표는 이미 선교지에서 사역 중인 Z세대 선교사들의 경우 8%만이 방향 설정에 대해 고민하는 것과 달리 잠재적인 Z세대 선교사들은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를 주고 시간을 내어 이들이 직면한 장애물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공감해 주는 선교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질문 항목에서 Z세대들이 선교에



지난 1월 오클라호마에서 구호 물품 배급 사역을 하는 윈드우드자유지침례교회가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파손됐다.

헌신하는 주된 요인으로, 복음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느끼기(80%), 자신의 은사와 기술, 열정 활용하기(74%), 건강한 공동체와의 만남(65%),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봉사(63%)가 상위 순위로 나타났다. 북미에서 Z세대 선교 관심자들이 좋은 단체와 선배 선교사를 만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선교 파송으로 이어지고, 이들을 통해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EMQ 62, no. 1)

◇북미 교회를 대상으로 한 방화과 폭력 범죄 증가하고 있어

미국의 가족연구협의회(Family Research Council)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 미국 교회에 대한 공격 행위가 4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에 발생한 485건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치지만, 2018년의 50건과 비교하면 무려 8배가 넘는다. FBI 범죄 데이터 자료에서도 2025년 한 해 동안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회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는 265건이었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1,380건에 달했다. 모든 공격 행위가 종교적 또는 정치적 적대감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 행위는 2022년에 198건으로 대폭 상승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교회 대상 방화 범죄가 증가했다. CBC 뉴스 조사 결과,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교회를 향한 고의적 방화 범죄는 31건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 발생했던 14건의 두 배가 넘는다. 2026년 1월에 오클라호마에서 긴급구호 물품 배급 사역을 하는 윈드우드자유지침례교회(Windwood Free Will Baptist Church)가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파손됐고, 덴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 유명한 트리니티연합감리교회(Trinity

UMC)도 창문 파손 사건이 발생했다. 필라델피아 북부에 위치한 유니온트리니티아프리카감리교회(Union Trinity AME Church)에서는 인종차별적인 낙서로 건물 외벽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월 30일에는 한 방화범이 미시간주 플린트에 있는 성마가선교침례교회(St. Mark Missionary Baptist Church)에 화염병을 던져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종교 간의 적대감과 대립이 격화하지 않고, 북미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배려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christianitytoday.com)

◇미국 미네소타 교회들, 이민 단속으로 불안에 떠는 이웃들 돕고 있어

1월 24일, 연방 이민국 요원들에 의해 미네소타 주민이 총격 살해당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 전역은 긴장과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 1월에 기독교 잡지 크리스치안티투데이와 인터뷰를 가진 안드레아 목사는 자신이 아는 여러 개의 히스패닉 교회들에서 많은 교인이 떠났다고 말했다. 이제는 여대를 가진 여권을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메스쿠아 목사는 현재 교인이 500명에서 80명으로 줄었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이제 예배 시간에 문을 잠그고 기동화된 교인들만 입장시킨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담임하는 하나님말씀교회(Dios Habla Hoy Church)는 매주마다 교회 2층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며 식량이 필요한 28,000명에게 나눠 줄 물품을 포장한다. 많은 기부자들의 지원을 받아 공포에 떨며 집에 머물고 있는 수천 명의 이민자 가족에게 주 6일 식량을 배달한다. 그리고 트윈 시티 지역 목회자들은 불과 몇 주 만에 이민자 가정에서 식료품을 배달하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난민 재정착 지원 기관인 어라이브(Arrive Ministries)는 인권옹호협회(AHR)와 협력하여 수년간의 심사를 거쳐 재정착한 합법적인 난민들의 긴급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어라이브의 직원들은 연방 정부의 단속이 시작된 이후 35개 교회에서 설명회가 개최될 만큼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심각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이민자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생기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 곁에서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힘과 위로가 되어 주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christianitytoday.com)

한국선교연구원(KRI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Mission)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법정 의무 교육, 브릿지온이 여러분의 일터로 찾아갑니다!

브릿지온(Bridge On)은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밀알복지재단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예술단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찾아가 웃음과 감동이 넘치는 공연과 전시를 전하겠습니다.

문의 | 밀알복지재단 밀알문화예술센터
 메일 | art@miral.org

전화 | 02-6411-3649
 홈페이지 | 밀알문화예술센터.kr



자세히보기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 설립되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생애주기별 전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11개국에서 아동보육, 보건의료, 긴급구호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은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적지위를 부여받아 종교, 국적, 인종,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활동합니다.

美 국제종교자유위원회 “파키스탄 특별우려국 재지정해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파키스탄의 종교 자유 침해가 심각하다며 정부에 파키스탄을 '특별우려국'(CPC)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USCIRF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연례보고서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의 종교 자유 상황이 계속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신성모독법의 지속적 적용, 종교 소수자에 대한 군중 폭력, 특히 기독교와 힌두교 공동체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개종과 강제 결혼 사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3월 4일 공개했다.

위원회는 미국 국무부가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IRFA)에 따라 파키스탄을 CPC로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 현재 적용 중인 제재 면제 조치도 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종교 자유 침해에 책임이 있는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와 기관에 대해 자산 동결과 비자 제한 등 표적 제재를 부과할 것도 촉구했다.

USCIRF 의장인 비키 하츨러(Vicky Hartzler)는 “중국에서는 지하교회 신자들이 체포되고 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군중 폭력이 증가해 종교 소수자에 대한 공격과 주택 파괴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얀마 군부는 예배당을 폭격하고, 타지키스탄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칠 권리마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가에서 부당한 법과 차별, 괴롭힘, 폭력, 심지어 반인도적 범죄까지 통해 종교 자유가 부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의장 아시프 마흐무드(Asif Mahmood) 역시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억압과 비국가 행위자들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종교 자유 상황에 대한 감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돼야 할 보편적 인권”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종교 공동체가 공격받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2023년 12월 29일 발표한 CPC 지정에서 파키스탄을 비롯해 중

국, 이란, 북한,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등과 함께 종교 자유 침해 국가로 분류한 바 있다.

신성모독법 적용 지속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2025년에도 종교 박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법은 무슬림뿐 아니라 기독교인, 힌두교도, 아마디아 공동체 등 종교 소수자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2025년 1월에는 소셜미디어에 ‘신성모독적’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4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같은 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기독교인 파르한 마시(Farhan Masih)도 신성모독 및 테러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보복 우려로 고향 마을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19년 사형 선고를 받은 무슬림 대학 강사 주나이드 하피즈(Junaid Hafeez) 사건 역시 항소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그는 2014년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독방에 수감된 상태다.

종교 소수자 대상 폭력과 강제 개종



©Pixabay

보고서는 종교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군중 공격과 자경단식 폭력이 2025년 한 해 동안 더욱 심화돼 “공포와 불관용의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2025년 3월 한 무슬림 노동자는 기독교 동료인 와카스 마시(Waqas Masih)가 ‘부정한 손으로 이슬람 교과서를 만졌다’고 비난하며 그의 목을 베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며칠 뒤에는 힌두교도 나딤 나타(Nadeem Naath)가 이슬람 개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총격을 받아 숨졌다.

또한 소수 종교 공동체의 미성년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개종과 강제 결혼 사례도 계속 보고됐다.

2025년 2월에는 12세 기독교 소녀

가 납치된 뒤 이슬람으로 개종되고 35세 남성과 결혼한 사건이 신드 주(Sindh Province)에서 발생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15세 힌두교 소녀 샤날라(Shahneela)가 자택에서 납치돼 강제로 개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아마디아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제약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법은 아마디아를 비무슬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기도 행위를 이유로 체포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2025년 2월에는 이슬람 정치단체 Tehreek-e-Labbaik Pakistan(TLP) 지지자들이 시알코트(Sialkot)에 있는 아마디아 모스크의 침입을 철거했으며, 경찰은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다음 달에는 금요일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아마디아 신자 수십 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또한 4월에는 TLP 군중이 아마디아 모스크를 습격해 신자들의 예배를 막으려다 아마디아 신자인 리크 차마(Laeq Cheema)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제도 개선 촉구

USCIRF는 파키스탄을 CPC로 재지정하는 것 외에도 미국 정부가 IRFA에 따라 파키스탄과 구속력 있는 협정을 체결해 종교 자유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신성모독 혐의로 수감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신성모독법과 반(反)아마디아 법을 폐지하며, 군중 폭력과 강제 개종 등 종교적 동기에 의한 범죄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 의회가 파키스탄 관계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종교 자유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구금된 수감자들의 석방을 촉구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6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인 월드 워치 리스트(World Watch List)에서 파키스탄은 8위를 기록했다. 인구의 96% 이상이 무슬림인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을 포함한 종교 소수자들은 여전히 폭력과 차별, 논란이 많은 법률에 따른 기소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매경 기자

美 걸프 연안서 대규모 복음집회... 145개 교회 참여

미국 멕시코 인접 걸프 연안 지역에서 대규모 복음 전도 집회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빌리 그레함 복음전도협회(BGEA)는 ‘걸프 연안 희망 집회(Gulf Coast Celebration of Hope)’ 집회를 개최하며, 지역 교회 145곳과 협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

이번 집회에서는 고(故) 빌리 그레함(Billy Graham) 목사의 손자인 윌 그레함(Will Graham) 목사가 3월 21~22일 걸프연안 콜리시움과 컨벤션 센터(Gulf Coast Coliseum and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소망과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윌 그레함 목사는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걸프 연안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이 중요한 지역에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죽



윌 그레함 목사가 설교를 마치고 전에 진행된 전도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응답했다. ©BGEA

음을 이기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것”이라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걸프 연안 희망 집회’는 3월 21일 오후 7시에 시작되며, 음악 사역자 DOE와 Charity Gayle이 찬양을 인도한다.

이틀째이자 마지막 집회는 3월 22일 오후 6시에 열리며, Terrian과 체리티 게일이 찬양을 맡는다. 두 집회 모두 윌 그

레함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사랑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로시 L. 프랜시스(Rossie L. Francis) 목사는 “지금 바로 걸프 코스트 희망 집회를 통해 복음을 전할 적절한 때”라며 “많은 삶과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매경 기자

영 상원, ‘비범죄 혐오 사건’ 제도 폐지 여부 논의

표현의 자유 논란 확산

영국 상원이 논란이 이어져 온 ‘비범죄 혐오 사건’(Non-Crime Hate Incidents/NCHI) 제도의 폐지 여부를 두고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상원 의원들은 10일 범죄 및 치안법(Crime and Policing Bill)에 대한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해당 수정안은 NCHI 제도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액톤의 영 경(Lord Young of Acton)이 제출한 또 다른 수정안은 NCHI 기록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혐오 사건’으로 기록할 수 없게 된다.

이 수정안은 호건-호우 경(Lord Hogan-Howe) 등 여러 상원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과거에 기록된 NCHI 자료를 삭제하고 향후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의 강화 신원조사에도 해당 기록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에는 NCHI 제도를 폐지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비판자들은

해당 제도가 표현의 자유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거리 설교자들이 이러한 제도의 영향을 받은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2024년 스코틀랜드 목사인 앵거스 카메론(Angus Cameron)은 ‘혐오 범죄’ 관련 사건으로 부당하게 체포된 뒤 스코틀랜드 경찰에 의해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되면서 5,500파운드의 배상금을 받았고, 9,400파운드의 법률 비용도 지급받았다.

당시 경찰은 범죄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그의 이름으로 ‘비범죄 혐오 사건’ 보고서를 기록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론 목사는 이후 기독교 연구소(The Christian Institute)의 지원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한 2024년 더 타임스(The Times)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4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총 1만3,200건의 NCHI가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의사, 목사,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현재의 NCHI 기록 제도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정부



©Pixabay

는 표현의 자유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이먼 칼버트 기독교연구소 공공정책 부국장은 상원 의원들에게 수정안을 지지하고 NCHI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수년 동안 경찰이 입증되지 않았고 정치적 동기가 의심되는 불만 제기를 근거로 기독교인과 다른 시민들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혐오’ 혐의는 개인의 경력 전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오펜스 감시 체계를 연상시키며 이제 제도를 폐지하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남겨진 잘못된 기록을 삭제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매경 기자

의성군

항공물류중심 공항도시

의성

에서 만들어갑니다.

남수단 선교 비행 중 무장 납치 사건... 총구 앞 복음 전한 선교사 조종사

사마리아인의지갑 구조 비행 중 발생한 항공기 납치 사건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남수단에서 의료 구조 물자를 운송하던 선교 항공기가 무장 납치범에게 위협을 받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조종사가 복음을 전한 사건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선교사 조종사 짐 스트라이트(Jim Streit)는 최근 사마리아인의지갑(Samaritan's Purse)이 운영하는 팻캐스트 "On the Ground with Samaritan's Purse"에 출연해 2025년 12월 남수단에서 발생한 항공기 납치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스트라이트에 따르면 당시 비행은 사마리아인의지갑이 운영하는 아동 의료팀에 의약품 전달하기 위한 인도주의 비행이었다. 비행기는 남수단 북동부의 외딴 지역 마이웃(Maiwut)에 있는 의료 시설로 향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도로 접근이 어렵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도주의 단체들이 소형 항공기를 통해 의료 물자와 구조품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비행 중 나타난 밀입 승객과 무장 납치 위협

스트라이트는 당시 아프리카내륙선교회(Africa Inland Mission) 소속 선교사 조종사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수십 년간 항공 사역 경험을 갖고 사마리아인의지갑 구조 비행을 자주 수행해 왔다.

그는 동료 직원으로 소개된 벤(Ben)과 함께 비행 중이었으며 목적지까지 약 40분 정도가 남았을 때 갑자기 기체 뒤쪽에서 외침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잠시 후 이륙 전에 몰래 비행기에 올라탄 남성이 조종석으로 들어왔다. 그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비행기를 인접 국가인 차드로 방향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스트라이트는 팻캐스트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그 남자는 총을 들어 올려 탄창에 9mm 탄환 13발이 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그는 탄창을 장전하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린 채 총을 내 얼굴 바로 앞에 겨누었다. 그 남성은 점점 흥분한 상태였으며 자신뿐 아니라 조종사와 탑승자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총구 앞에서 전해진 복음과 성경 말씀

스트라이트는 "상황을 지연시키기 위해 비행 속도를 낮추고 공중에서 넓은 원을 그리며 시간을 벌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결국 연료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납치범이 속도 변화를 눈치채지 않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그의 계획은 남수단에 있는 인근 공항에 착륙해 보안 당국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납치범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복음을 설명했다.

스트라이트는 "성경은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며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믿었다"며 "저는 납치범에게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대화 중 스트라이트는 납치범에게 가족에 대해 물었고, 그 남성은 자신의 가족이 모두 죽었다고 답했다. 이후 그는 마스크를 벗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긴박한 상황 속 진행된 구조 대응

CP는 비행기가 공중에 있는 동안 아프리카와 미국에 있는 사마리아인의지갑 관계자들도 긴급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마리아인의지갑 아프리카 선교 항공 서비스 책임자인 매트 올슨(Matt Olson)은 12월 2일 새벽 전화를 통해 비행기가 납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올슨은 스트라이트와 30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이자 멘토 관계였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절박하게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일이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사마리아인의지갑 직원들은 임시 대응 센터를 마련하고 비상 대응 계획을 논의하며 스트라이트와 동료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다. 또 다른 사마리아인의지갑 항공기인 DC-3 비행기도 지원 가능성을 대비해 납치된 항공기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조정됐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 있는 피드몬트 트라이어드 국제공항(Piedmont Triad International Airport)의 사마리아인의지갑(Samaritan's Purse) 항공 대응 센터(Airlift Response Center) 밖에 새로 도입된 보잉 757 항공기가 서 있다. ©Courtesy of Samaritan's Purse

아인의지갑 항공기인 DC-3 비행기도 지원 가능성을 대비해 납치된 항공기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조정됐다.

◆남수단 외우 공항에 안전 착륙

스트라이트는 "납치범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조종석에서의 외부 통신을 최소화했다. 저는 조종석에서 잠시 기도한 후 납치범에게 비행기가 착륙하도록 허락하면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그러자 납치범은 잠시 후 총을 들어 아래 쪽을 가리키며 착륙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비행기는 목적지였던 마이웃에서 약 400마일 떨어진 남수단 도시 와우(Wau)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착륙 이후 남수단 국가안보국이 납치범을 체포했으며 탑승자 가운데 심각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국은 용의자를 아비에이 행정구역(Abyei Administrative Area)에 거주하는 야시르 모하메드 유수프(Yasir Mohammed Yusuf)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비에이 지역은 남수단과 수단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석유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 당국은 "납치범은 이륙 전 항공기에 몰래 탑승했으며 정확한 비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 이후 납치범과 함께 드린 기도

사건이 마무리된 뒤 스트라이트와 벤은 군인들이 납치범을 통제할 상태에서 다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스트라이트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벤이 나에게 그를 위해 기도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인들이 주변에서 있는 가운데 납치범 옆에 앉았고 벤이 그를 위해 구원의 기도를 드렸다"고 했다.

끝으로 스트라이트는 "이번 사건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성경 보급 급증... 우크라이나성서공회 160만 권 배포

전쟁 장기화 속 성경 수요 증가와 트라우마 치유 사역 확대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턴셔널(CDI)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성서공회(Ukrainian Bible Society)가 성경 보급과 트라우마 치유 사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성서공회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약 160만 권의 성경을 전국에 보급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약 1천 권에 가까운 규모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성서공회에 따르면 이러한 성경 보급 사역은 처음에는 긴급한 인도적 대응 차원에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으로 인한 정서적·심리적·영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장기적인 사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성서공회는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사람들의 정서적·심리적·영적 생존을 위한 장기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 되고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사진은 기사와 무관). ©기독교일보 DB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서공회는 교회와 협력해 성경 보급뿐 아니라 목회적 돌봄과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며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쟁 장기화 속 성경과 신앙 자원의 수요 증가

우크라이나성서공회는 현재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필요가 초기 긴급 구조에서 장기적인 회복과 공동체 재건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수많은 가정이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약 100만 명의 인력이 군 복무에 투입된 상황이며 민간인 피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 전반에 걸쳐 도덕적·정신적·신체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성인들은 장기간 지속되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상실의 슬픔, 가족 분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앙적 위로를 얻기 위해 성경과 신앙성경, 묵상집, 묵회 자료 등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크라이나 성경 보급 사역은 전쟁 상황에서 신앙과 공동체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린이와 청소년 위한 성경 보급 사역 확대

보고서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경 보급이 최근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교회들이 앞으로 우크라이나를 재건할 세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과 정서적 돌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오랜 기간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으며, 안정과 희망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삼화가 포함된 어린이 성경과 연령에 맞는 성경 이야기책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성서공회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회와 협력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경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쟁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라우마 치유 사역 전국적 확산

성경 보급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요 사역은 전쟁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이다. 이 사역은 러시아 침공 직후 시작됐으며 처음에는 약 90명이 참여한 세미나 형태로 출발했다. 그러나 이후 사역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연결된 돌봄 네트워크로 발전했다.

우크라이나성서공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6,380명이 트라우마 돌봄 교육을 받았으며, 전국에서 114회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

다. 또한 심리·영적 회복을 돕기 위한 93개의 추가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회복 캠프, 지역사회 치유 프로그램, 전사자 가족과 참전 군인, 어린이, 국내 실향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6년 성경 보급과 치유 사역 확대 계획

CDI는 우크라이나성서공회가 2026년에도 성경 보급 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서공회는 앞으로 약 30만 권에서 40만 권의 성경을 추가로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트라우마 치유 사역도 확대해 워크숍과 상담 모임, 회복 센터 운영,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약 1만6천 명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성서공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믿음과 치유, 그리고 희망을 전하고 있다. 한 가정, 한 교회, 한 공동체를 통해 희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전쟁으로 상처 입은 시민들에게 성경과 돌봄 사역을 통해 지속적인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경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중심.**

SMR 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을 찾습니다!

원자력 산업 생산·수출 플랫폼

SMIR

Small Modular Reactor | 혁신원자력

국가산업단지

- ☑ 광역접근성 우수
- ☑ 원자력산업 핵심시설 집적
- ☑ SMR 소부장 제조업시설 조성

경주시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계 긴장 고조... 원청 대상 단체교섭 요구 확산

하청 노조 대규모 교섭 요구 속 '노란봉투법 1호 판례' 가능성 주목... 사용자성 판단이 핵심 쟁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자마자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 시행과 동시에 대규모 교섭 요구가 이어지면서 향후 노사 관계와 산업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 사이에서는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특정 기업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1호 판례'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첫 판례가 향후 노사 관계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고용노동부와 재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조선자동차-해운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공문이 잇따라 전달됐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일인 전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총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소속 약 8만1600명이 원청 사업장 221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화오션, 포스코, 쿠광CL,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개 원청 사업장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사실상 교섭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회사 게시판 등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고용노동부와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협력사 등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



최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던 모습. ©뉴스시스

했다.

한화오션 역시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HD현대중

공업 등 주요 제조업체들도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 공문을 받은 만큼 조만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은 현재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우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뒤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분위기다. 교섭 요구를 받은 기업들이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해석과 향후 노사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계가 이를 교섭 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더라도 교섭 개시가 곧 교섭 대상 인정이나 모든 의제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기업들은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건이 '노란봉투법 1호 판례'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하청 노조와 원청 기업 간 교섭 과정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노동계가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교섭 요구를 확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부 노동계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사간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노사 관계의 안정을 위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에 함께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간 교섭 구조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착될지에 대해 노사 양측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나래 기자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임박... 한국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본격화 전망

LNG 터미널-원전-전력망 협력 거론... 한미 통상 불확실성 완화 기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미 전략투자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회 프로젝트가 이르면 이달부터 본격화될

자 실행 체계를 신속히 가동해 한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경제 협력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

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미 전략 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 공사가 공식 출범하게 되며, 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다. 이는 한국이 연간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약 200억 달러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전략 투자 사업으로 평가된다.

미국에서는 텍사스 Hypergrid 프로젝트와 미시간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테네시 Clinch River Nuclear Site SMR 프로젝트 등이 협력 후보로 언급된다. 또 미국 남동부 원전 벨트 지역 역시 원전 협력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거론된다.

구급약인 활명수

반고마이이 기기충전 손기정 남승룡 양선수 우송축하
건국헌정 70주년 기념 활명수 내구력의 근원인 오직 건전한 위장에서 배태된다.
건국헌정 70주년 기념 활명수 내구력을 높이고 다같이 위생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활명수를 1000원입니다.

藥 賜 胃 急 救
水 命 活
수 명 활

服 用 합 시 다

活 命 水 를

服 用 합 시 다

地 帶 五 町 泉 和 唐 城 京 株 式 有 限 公 司
房 藥 和 同
九 一 七 二 光 新 路

牛島男兒의 意氣衝天
孫基順、南昇龍兩選手優勝祝賀
健康한體力、堅忍不拔하는耐久
力에根源은 오직健康한胃腸에서
胚胎된다健康한朝鮮을目標하고
다같이胃腸을健全케하기爲하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손기정 우승 축하 동화약품 일간지 광고 (1936년)



동화약품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후보 사업을 검토하고, 이후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가 전략적 타당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중심이 돼 실제 투자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차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지만 최근 미 정부의 투자 요구가 강화되면서 투자 추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일본 정부가 약 5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먼저 확정하면서 한국 역시 투자 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에너지와 자원, 인프라 분야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특히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사업이 대표적인 후보 프로젝트로 언급된다.

해당 사업은 루이지애나 지역에 LNG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투자 규모는 100억 달러 이상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의 경제성과 전략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미국은 LNG 터미널 건설 투자와 함께 LNG 운반선 건조, 관련 기자재 수출, 장기 LNG 구매 계약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가 공식화될 경우 한국은 장기 LNG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LNG 가격 안정과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LNG 운반선 건조와 가스 플랜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터미널 건설 과정에서 철강과 기자재 수출이 확대될 경우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에너지 인프라 투자 외에도 원자력 발전과 전력망 분야 협력도 대미 투자 후보 사업으로 거론된다. 미국은 웨스팅하우스를 중심으로 원전 설계 기술에서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원전 건설과 기자재 공급 능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에서는 텍사스 Hypergrid 프로젝트와 미시간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테네시 Clinch River Nuclear Site SMR 프로젝트 등이 협력 후보로 언급된다. 또 미국 남동부 원전 벨트 지역 역시 원전 협력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까지 대형 원자력 발전소 10기 착공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부지 선정과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고려할 때 한미 원전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미국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충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노후 전력망 재정비 사업 역시 한미 협력 프로젝트로 거론된다. 한국은 고전압 송전 기술 등 전력망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정부는 대미 전략 투자가 국내 산업 경쟁력과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가 국내 투자와 수출로 환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과 방산, 플랜트 등 주요 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지원하고, 유망 소비재의 수출 기반도 강화해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나래 기자

고유가 대응 비상경제장관회의... 구윤철 부총리 "유류세 인하·추경 등 정책수단 총동원"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안정과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검토와 보조금 확대, 추가경정예산 활용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고유가 상황이 민생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유가 동향과 관련해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제 유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차버스터럭 등 운송업계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 바우처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민생 경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대응해 석유 시장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대상 유종과 가격 기준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석유제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해 정유사와 주유소의 사재기나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불안 심리를 약용한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 상황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더불어 필요할 경우 정부는

100조 원 규모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확대하고, 한국은행과 협력해서 긴급 바이백이나 국고채 매입 등 추가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의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수입원 확보와 재정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펀더멘털이 안정적이며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어 위기 대응 능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경제 활동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체제로 전환해 매우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 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운영할 계획이다. 박용국 기자

미군, 호르무즈 해협 기뢰부설 선박 격침... 이란 해협 봉쇄 시도 차단

CENTCOM 작전 영상 공개... 트럼프 “기뢰 설치 시 전례 없는 군사 대응” 경고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기뢰를 설치하려던 이란 측 선박들을 공격해 격침했다고 밝혔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부설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중동 군사 긴장과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CENTCOM은 10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미군이 이란 해군 선박 여러 척을 제거했으며, 이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기뢰부설을 시도하던 선박 16척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선박을 순차적으로 쏘준해 타격하는 작전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미국 언론들은 앞서 이란이 소형 선박을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운반·설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도

했다. 한 당국자는 이란이 선박 한 척당 2-3개의 기뢰를 운반해 해협 일대에 설치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CBS는 이란이 약 2000-6000개의 기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당수는 자체 생산했거나 중국과 러시아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전했다. 페르시아만과 외해를 연결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해상 통로다. 이 지역에 기뢰가 설치될 경우 사실상 해협

봉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 국제 유가 급등과 함께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면 즉시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뢰가 제거되지 않을 경우 이란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군사적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미사일과 군사 기술을 동원해 기뢰 설치를 시도하는 모든 보트와 선박을 제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추가 글에서 비활성 상태의 기뢰부설 보트 10척을 추가로 파괴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며 추가 조치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CENTCOM의 선박 격침 영상 공개는 이러한 발언 직후 이루어지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 긴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홍은혜 기자



10일 미중부사령부가 X에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이란 함정 공격 영상. 미군은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는 기뢰부설함 16척 등 군함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미중부사령부

이란 원유 수출 핵심 ‘하르그섬’ 공격 가능성...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변수

이란 원유 수출 90% 담당 전략 거점... 공격 시 중동 갈등 확대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 충격 우려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인 ‘하르그섬(Kharg Island)’을 공격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중동 정세와 국제 에너지 시장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하르그

섬은 이란 석유 수출의 중심지로, 공격이 현실화될 경우 이란 경제와 전쟁 수행 능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전략적 목표로 평가된다. 동시에 중동 갈등이 급

격히 확대되고 국제 유가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프랑스24와 CNBC에 따르면 하르그섬은 이란 남부 부셰르주 해안에서 약 25km 떨어진 면적 20km² 규모의 섬이다. 규모는 작지만 이란 석유 산업 핵심 인프라가 집중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하르그섬이 이란 에너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평가한다. 체탄하우스의 중동 에너지 전문가 닐 칼리업은 페르시아만의 얕은 수심 때문에 대형 유조선이 내륙 항구에 접근하기 어렵고, 사실상 이용 가능한 항구가 하르그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르그섬을 두고 “이란 석유 산업의 왕관의 보석”이라고 표현했다. 이란은 1960년대 팔라비 왕조 시절부터 하르그섬을 원유 수출 터미널로 개발해 왔다. 이후 시설 확충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대규모 저장시설과 송유관, 하역 설비가 구축됐고 하루 약 700만 배럴 규모 원유 하역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하르그섬이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이라고 설명한다. 베로나 국제안보연구팀의 소니아 마르티네즈-지몬은 하르그섬을 “이란 경제와 세계 에너지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동맥”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하르그섬을 공격할 경우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가 하르그섬을 공격해 이란 석유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하지만 하르그섬 공격은 중동 갈등을 크게 확대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하르그섬을 공격할 능력은 충분하지만, 실제 공격이 이뤄질 경우 갈등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블린대학교 국제정치학과 스콧 루카스 교수는 하르그섬 공격이 갈등의 중대한 격화를 의미한다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중동 에너지 시설 공격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라시아그룹의 마크 구스타프스 전략 분석 책임자도 하르그섬 점령에는 지상군 투입이 필요할 수 있고, 장기간 드론 공격 등으로 국제 유가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홍은혜 기자

주한미군 방공무기 일부 중동 이동 논란... 정부 “대북 억지력 영향 없다”

주한미군 방공무기 일부가 중동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대북 억지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1일 패트리엇에 이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주한미군 방공무기가 중동 지역으로 반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규모, 방위산업 역량 등을 고려할 때 대북 억지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주한미군 방공무기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패트리엇에 이어 사드 장비 일부가 이동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한반도 방공 능력 약화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통해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공무기 이동과 관련해 대북 억지 전략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무회

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할 수 있다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가 대북 억지 전략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자주국방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외부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 스스로 방위 역량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 군의 독자적 방위 능력과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한반도 안보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용국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다음 달 시작... 서훈·김홍희 재판 쟁점 재부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은 왜 일어났는지 조망하기 위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사건의 핵심 쟁점이 다시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다음 달 9일로 지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22년 6월 감사원이 관련 감사에 착수하면서 다시 논란이 됐고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재판에 넘기며 사법 판단 단계로 넘어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격 혐의 확인 이후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협조경찰청에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 피격 사실을 숨긴 채 실종 상태에서 수색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을 언급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고 이대준 씨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

서 자진 월북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발표가 이뤄졌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두 사람에게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이나 허위 사실이 개입됐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한 혐의와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절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박용국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

공중보건조사 대거 전역 앞두고 지방 의료 공백 우려 확대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 의료를 담당해 온 공중보건조사(공보)가 대거 전역을 앞두고 지방 공공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보건지소 진료 중단 사태가 발생, 지역 의료 공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조사원은 2160명으로, 전체 공보의 2551명의 약 84%가 지역 공공의료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공보의 대규모 복부 만료가 예정되면서 지역 의료 공백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다음 달 기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조사원 가운데 930명이 전역할 예정으로 전체의 약 43%에 해당한다. 특히 농어촌과 산간·도서 지역이 많은 지방에서는 공중보건조사 의존도가 높은 만큼 영향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전라·충청·강원 등 지방 광역도의 경우 공보의 역 약 절반이 전역 대상이며, 경기도 역시 약 63%가 전역을 앞두고 있다.

공중보건조사 수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전체 공보의와 군의관 규모는 2022년 3373명에서 2025년 2551명으로 줄었고, 이와 공중보건조사는 같은 기간 1720명에서 945명으로 약 45% 감소했다. 신규 편입 인원도 2022년 1048명에서 2025년 738명으로 감소했다. 이미 보건지소 폐소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최근 3년 동안 공중보건조사 부족을 이유로 보건지소 16곳이 폐소됐고 일부 시설은 기능이 전환됐다. 이나라 기자

모든 기독교 순교 뒤에 있는 '바벨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로빈 슈마허(사진)의 기고글인 '기독교 순교자들 뒤에는 언제나 제국이 있었다(The empire behind every Christian martyr)'를 9일(현지시간) 게재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필자의 매일 성경 읽기 방식은 매우 단순하다.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까지 쪽 읽고 나면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읽는다. 물론 구약도 함께 읽는다.

필자는 NASB 번역의 맥아더 스테디 바이블(MacArthur Study Bible)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맥아더의 주석은 대부분의 스테디 바이블이 침묵하는 어려운 본문들을 피하지 않고 설명한다. 둘째, 필자는 문자적 번역에 가까운 형식 대응(formal equivalence) 번역 철학을 선호하는데, NASB와 ESV 같은 번역본이 그 방식을 비교적 일관되게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필자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읽고 있었다. 이 두 장은 오래전부터 필자의 관심을 끌여 온 주제를 다루고 있다. 바로 "큰 바벨론"(계 17:5)의 몰락이다. 이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로 묘사된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요한의 시대뿐 아니라 인류의 타락 이후 계속되어 온 거대한 영적 갈등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 갈등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이어지는 18장은 바벨론의 상업 제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묘사한다. 더 나아가 그것에 의존해 온 세상의 체제 전체의 붕괴를 보여 준다.

이 두 장은 함께 반기독교적 질서 전체의 최종 패배를 선포한다. 그리고 이 환상이 곧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번에 다시 읽는 동안 특히 두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첫째는 계시록 17장 6절이다. 거기서 "신비한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이어져 18장 24절에는 더욱 섬뜩한 말씀이 나온다: "그 안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발견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강렬하다. 성경은 모든 기독교 순교자 뒤에 있는 영적 제국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신앙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겪은 모든 사람들 뒤에는 동일한 영적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나이지리아에서 신자들을 죽이는 AK-47 방아쇠를 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인의 생명을 빼앗는 칼과 무기를 움켜잡는 배후의 힘은 바로 바벨탑에서 시작된 고대의 영적 반역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놀라운 주장이다. 그러나 성경은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선언한다.

◆모든 반역의 근원

성경에 따르면 바벨론은 단지 미래의 도시나 과거의 제국이 아니다. 바벨론은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의 영적 배후다.

이 사실은 영적 폭정의 본질, 인류 역사의 흐름, 그리고 복음 중심에 놓여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화적 갈등에도 깊은 의미를 던진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상징이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조직된 인류 문명의 상징이다. 시간과 시대를 넘어 존재하는 초역사적 악의 영적 세력이다.

그 이야기는 바벨탑에서 시작된다. 그곳에서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한계를 거부하고 스스로 세계를 세우려 했다. 이후 그 정신은 하나님보다 정치 권력을 높였던 느부갓네살의 제국에서 다시 나타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 열방을 취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지막 세계 체제를 상징한다.

이 체제의 영적 충성 대상은 사탄이다. 바벨론은 단순히 여러 무신론 국가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그 모든 것의 원형이 되는 세력이다.

어떤 사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권력을 무기화할 때, 그것은 바벨론이 새로운 얼굴을 쓰고 등장한 것이다. 의로운 사람들이 악인들의 손에 고통을 당할 때마다 바벨론은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침묵

당하고, 추방되거나 조롱당할 때마다 바벨론은 그곳에 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성경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순교가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한다. 각각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도성과 적대적인 인간의 도성 사이의 거대한 갈등 이야기의 일부다. 바벨론을 성도들의 살해자로 묘사한다는 것은 박해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 뒤에는 영적 설계자가 있다. 이 세력은 국가 권력이 기독교 신앙을 지우려 하는 정권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비난하는 문화 속에서도 번성한다.

예술, 학문, 기술 영역에서도 인간의 자율성을 창조주보다 높일 때 그것은 살아 움직인다. 또한 사회적 조롱, 도덕적 가치의 전도, 성경적 윤리를 버리도록 압박하는 문화 속에서도 스며든다. 그리고 결국 기독교 신앙을 "편협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규정하며 폭력으로까지 나아간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이미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놀라울 만큼 현실적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건한 사람들을 향한 박해의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순교자 뒤에 있는 제국은 언제나 깨어 있으며, 시대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어 나타난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 모든 박해는 우주적 이야기의 일부이며, 문화적 적대감 역시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바벨론이 압도적으로 보일 때에도 신실함을 지켜야 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야 한다.

요한계시록이 바벨론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유는 교회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다. 폭력, 사회적 배제, 혹은 유혹의 형태로 나타나는 박해에는 얼굴이 있고 이름이 있다. 그리고 그 세력에는 정해진 결말이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분명하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그 세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최승연 기자

교회 안에서 커지는 반유대주의... 구약을 잊을 때 일어나는 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라이언 돕슨 작가(사진)의 기고글인 '교회 안에서 반유대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Antisemitism is growing in the Church. Something has gone wrong)'를 7일(현지시간) 게재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증가하고 있다. 폭력적인 공격 사건들은 하루 정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가 곧 잊혀진다. 그러나 훨씬 덜 주목받고 있는 문제는 복음주의 진영의 대화 속에서도 반유대 정서가 점점 아무렇지 않게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조사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미국 유대인의 91%는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폭력적 반유대 공격 때문에 미국에서 덜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86%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테러 공격 이후 반유대주의가 더 증가했다고 말한다.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은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개인적으로 반유대적 공격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만으로는 미국 교회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필자는 총괄 프로듀서 로널드 도(Ronald Daw), 작가 앤드루 클레이번(Andrew Klavan), 감독 사이러스 노라스테(Cyrus Nowrasteh)와 함께 히브리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시리즈 「더 코벤넌트(The Covenant)」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하다.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믿음을 형성했던 구약의 이야기를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다시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어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드러나는 가벼운 경멸의 태도는 더 깊은 문제를 드러낸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서와 서신서로 곧바로 넘어가면서 토라와 예언서를 충분히 다루지 않는다. 그 결과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완성하신

언약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유대인에 대한 경멸이 나타날 때, 그것은 정치적 문제가 이전에 신학적 문제를 먼저 드러낸다.

실제로 필자가 이스라엘에서 들었던 가장 거친 말들은 테러리스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왔다.

필자와 아내의 지난 12월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걸었고, 빈 무덤을 방문했으며, 노바 음악 축제 학술 행사를 찾았다. 또한 10월 7일 공격으로 자녀를 잃은 가족들을 만났다. 전사한 군인들의 가족들과 함께 울었고, 인질로 잡혔다가 풀려난 사람들과도 만났으며,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을 둔 부모들과도 시간을 보냈다.

그 후 필자는 이스라엘 국기 옆에 서 있는 자신의 사진을 단순히 SNS에 올렸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댓글과 메시지 창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쏟아졌다. 분노였다.

그것은 정치적 토론이 아니었다. 단순한 의견 차이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어두운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공격들은 세속적인 비판자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왔다.

한 사역자는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당신은 바보다"라고 말했다. 또 한 여성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찾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선택받은 백성이다."

필자는 충격을 받았다. 필자는 성경이 유대인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는 가정에서 자랐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목격한 반응은 무언가가 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성경으로부터 자신을 떼어 놓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성경을 몸소 구현하셨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사탄은 사면 10편을 인용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세 번 모두 토라의 말씀으로 시험에 응답하셨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사면 22편의 첫 구절을 외치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언어와 사고는 히브리 성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에 대해 교만해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사도 바울은 감람나무의 비유를 사용했다. 이방인 신자들은 접붙여진 가지라는 것이다. 우리는 뿌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에서 오는 영양을 함께 누리게 된 존재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신자들은 감사와 경외 대신 교만한 태도를 보인다. 구약이 무시될 때 이러한 겸손은 사라진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잊으면 이스라엘은 의미 없는 존재가 된다. 예언서를 잊으면 포로 생활은 심판이 아니라 거절로 오해된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읽으면 이방인 신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이야기 속으로 접붙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결과는 미묘하지만 매우 위험하다. 유대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어떤 정부를 무조건 지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 정책은 논쟁할 수 있고 군사 결정도 비판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대인에 대한 경멸은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

만약 당신의 신학이 하나님께서 율법과 예언자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주신 그 민족을 멸시하게 만든다면, 그 신학 어딘가가 무너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추상적 논쟁이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는 성경을 보존해 온 민족의 살아 있는 후손들이다.

반유대주의의 해독제는 정치적 진영 논리가 아니다. 그것은 성경적 이해다. 기독교가 로마나 위상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토라와 예언서에 깊이 잠길 때,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언약의 틀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뿌리를 잊어버린다면 열매가 쓰게 되는 것을 놀랄 이유가 없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존재가 아니다. 교회는 은혜로 그 나무에 접붙여진 존재다. 그리고 은혜에는 경멸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최승연 기자

최승연 기자

최승연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자금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공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

- 기업구조조정펀드
- 경로 신비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http://www.kamco.or.kr)
 문의 1588-3570

구약의 종말론



조덕영 박사
창조신학연구소 소장

종말론은 신학적으로 '마지막 일들에 대한 교리를 의미한다. 헬라어로는 '타 에스카타(τὰ ἔσχατα)'라고 하며, 인간의 마지막과 세계의 마지막을 함께 다루는 신학적 주제이다. 종말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죽음과 이후의 상태를 다루는 개인 종말론과, 역사의 끝과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을 다루는 세계 또는 우주적 종말론으로 구분된다.

◆개인 종말론과 세계 종말론

개인 종말론은 인간의 죽음과 그 이후의 상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여기에는 육체적 죽음의 의미, 영혼의 상태, 죽음 이후의 중간 상태와 같은 문제들이 포함된다. 반면 세계 종말론은 역사의 끝에서 일어날 우주적 사건들을 다루며,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 최후 심판과 같은 사건들과 깊이 연결된다.

◆구약의 개인 종말론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개인 종말론은 죽음을 단순한 생물학적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구약의 죽음은 종종 장차 이루어질 더 큰 구원의 현실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은 이러한 관점을 잘 보여준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드러낸다. 따라서 구약 시대의 죽음 이해는 아직 완전히 현실화되지 않은 구원의 약속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구약 이해는 교회사 속에서 모험론적 해석 전통으로 발전하였다. 아레네우스와 안디옥 학파는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을 장차 이루어질 구

속 사건의 모형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오리겐과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강조했던 알레고리직 해석과 구별되는 접근 방식이다.

1) 구약의 부활 신앙의 점진적 계시

구약의 부활 사상은 처음부터 완전한 교리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드러난 계시로 이해된다. 초기 구약 문헌에서는 죽음 이후의 상태를 스올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스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아니며, 악인과 악인의 구분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영역으로 묘사된다. 그곳의 존재들은 생명력이 없는 그림자와 같은 상태로 표현된다.

그러나 구약의 신앙은 점차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음을 넘어선다는 확신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은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며,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스올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야말로 영원한 분기이라고 고백한다. 이러한 신앙은 결국 하나님만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진다.

예언서에서도 이러한 사상은 점차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활의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그는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은 죽음을 가리킨다고 설명하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희망을 선포하였다. 이 환상은 단순한 개인 부활의 묘사라기보다 역사적 회복과 구원의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된다.

이사가 역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예언하였다. 그러나 개인적 부활을 보다 분명하게 언급한 본문은 다니엘서에서 등장한다. 다니엘서는 땅의 티끌 가운데 잠든 자들이 깨어나 어떤 이는 영생을, 어떤 이는 영원한 수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며 부활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전망을 제시한다.

◆구약의 세계 종말론

구약의 세계 종말론에서 가장 중심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와 날'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킨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 개념을 강하게 선포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와 날을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날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아모스는 오히려 그날이 불의한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여호와와 날은 단순히 파괴와 멸망을 의미하는 사건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된다. 선지자들은 결국 온 땅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선포하였다.

1) 남은 자 사상

구약 종말론에는 '남은 자' 사상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심판이 임하더라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아 있는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신앙이다. 이 남은 자들은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재건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핵심 공동체로 이해된다.

2) 메시아적 소망과 다윗 왕권

메시아에 대한 소망 역시 구약 종말론의 중요한 요소이다. 다윗 왕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왕권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 왕조는 분열과 외세의 침략 속에서 쇠퇴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선지자들은 다윗의 계보에서 장차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을 선포하였다.

이 메시아는 다윗을 능가하는 통치자로서 평화와 정의의 나라를 세울 존재로 기대되었다. 이사와 미가, 예레미야 등의 예언 속에는 이러한 메시아적 왕국에 대한 전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3) 묵시 사상의 등장

구약 후기 문헌에서는 묵시 사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니엘서와 같은 문헌에서는 현재의 고난받는 세대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승리의

시대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이분법적 역사관이 등장한다. 이 묵시적 세계관 속에서 선과 악, 하나님과 대적 세력 사이의 거대한 우주적 갈등이 묘사된다.

그러나 이 갈등의 끝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확신적으로 제시된다. 종말의 때에 악인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형성되며,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비전이 제시된다. 이 나라에서는 자라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그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

◆구약 성경 각 문헌에 나타난 종말론

1) 모세오경

모세오경에서는 종말론적 교리가 비교적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천년왕국이나 세계의 종말과 같은 개념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최후의 심판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토라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어진 언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한다. 이 약속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의 소유를 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후의 역사 속에서 점차 분명하게 드러난다.

2) 역사서와 시가서

역사서와 시가서에서는 다윗 왕조를 통해 나타나는 메시아적 기대가 더욱 분명해진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이 반복되며, 시편에서는 장차 나타날 왕과 그의 통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난다. 이러한 전통은 훗날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연결된다.

3) 대선지서

대선지서에서도 종말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한다. 이사야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궁극적 통치를 바라본다. 예레미야서는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것을 예언한다. 에스겔서는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상징

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한다.

4) 소선지서

소선지서에서는 종말론적 메시지가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선지자들은 여호와와 날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강조하였다. 이 날은 죄에 대한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복과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 요엘은 여호와와 이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하며 이 메시지는 이후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구절로 인용되었다.

소선지서들은 또한 메시아적 통치에 대한 기대를 강조한다. 미가는 장차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을 예언하며 종말론적 평화를 바라본다. 아모스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하며, 스가라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통치자의 등장을 예언한다.

또한 이 문헌들에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공동체를 보존하신다는 '남은 자' 사상이 반복된다. 고난을 통과한 겸손한 백성들이 종말론적 공동체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강조된다.

◆구약 종말론의 신학적 의미

구약의 종말론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경계를 넘어 온 세계의 회복을 바라보는 전망으로 확장된다. 요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며 이는 훗날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되는 중요한 예언으로 이해된다. 요나서 역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구원의 보편성을 암시한다.

이처럼 구약의 종말론은 역사 속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 회복을 바라보는 신앙적 전망을 담고 있다. 선지자들은 인간의 제국과 권력은 결국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확신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종말론적 기대는 이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이해로 이어지며, 구약의 약속과 그 성취 사이의 긴장을 형성하게 된다.

하나님 일하심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heaven)이 가까웠느니라(마4:17)였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를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갑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배경이나 학벌 등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형제를 부르신 것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4:19)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뛰어나고 완벽한 사람이라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완벽해야 쓰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굳이 자적이 있다면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에서 머뭇머뭇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

기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진형 교수는 한국 여성 최초로 스텐포드 대학의 종신교수가 되었는데, 자기 실력보다 시험을 잘 보는 이유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어떤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먼저 문제집부터 푼다고 합니다. 비록 잘 몰라서 많이 틀리긴 하지만 문제를 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반복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것을 꼭 알아야 할 것인지 전체적인 흐름이나 중요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먼저 인생의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지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자녀의 문제, 건강이나 물질의 문제, 관계나 이념생활과 신앙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한 걸음씩 전진하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도 사람을 찾으셔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문제들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였다고 간증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30정

발열

인후통

몸살

근육통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베타에타딘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빈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어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염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가시나무’를 통한 웨슬리언의 신앙고백

양기성 박사

웨슬리언교회지도자
협의회 대표회장



노래의 핵심 이미지는 바로 “가시나무”이다. 가시는 아름다운 꽃을 가리기도 하고 사람을 찌르기도 한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상징한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만물보다 거저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렘 17:9)

우리 마음에는 사랑도 있지만 동시에 미움도 있다. 선한 의지도 있지만 욕심과 교만도 함께 존재한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다.

웨슬리 신학도 인간의 타락한 현실을 분명히 인정한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웨슬리 신학은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선한 생각과 선한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

종교개혁의 완성자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는 이것이 바로 웨슬리 신학의 중요한 개념인 선행은총(Prevenient Grace)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뜻이다. 우리 마음이 가시밭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2. 상처 속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노래 「가시나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아픔을 노래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인간의 구원을 은혜의 여정으로 설명했다. 그는 구원을 세 단계로 설명했다.

첫째 선행은총(Prevenient Grace)

둘째 칭의의 은혜(Justifying Grace)

셋째 성화의 은혜(Sanctifying Grace)

이 과정은 마치 가시나무가 꽃을 피우는 과정과 같다. 처음에는 가시만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가시 사이에서 꽃이 피어난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웨슬리언 신앙의 특징은 단순히 “죄 사함”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거룩한 변화”의 신앙을 추구한다.

3. 가시는 십자가의 상징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병사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 가시는 고통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다.

우리 인생에도 가시가 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있고, 우리 일에 실패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인간관계의 상처가 있고, 내가 지은 죄의 기억이 남아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시

에 찔려 아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 웨슬리는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그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따라서 가시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성화의 도구가 된다.

4. 가시에서 꽃으로: 성화의 길

웨슬리 신학의 중심은 성화(Sanctification)이다. 구원은 단지 죄를 용서받는 사건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것은 인간이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삶의 중심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적 완전이란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의 가시나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화된다.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며, 상처가 치유로 바뀐다. 이것이 성화의 길이다.

5. 오늘의 웨슬리언 신앙고백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에도 많은 가시가 있다. 경쟁과 불안, 관계의 상처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시밭 같은 마음에서도 꽃을 피우신다.

하덕규의 노래 「가시나무」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마음속 가시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웨슬리언 신앙은 이렇게 대답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시를 꽃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이 노래는 하나의 신앙고백이 된다. 우리 마음속 가시나무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의 꽃을 피우신다. 그리고 그 꽃은 결국 사랑의 열매가 된다. 이것이 바로 웨슬리언 신앙이 고백하는 복음의 능력이다.

6. 하덕규의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실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 곳 없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고린도전서 13장 4절)

상처 속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국 기독교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노래 가운데 하나가 있다. 바로 “가시나무”이다. 이 노래는 가수이자 목회자인 하덕규가 만든 작품으로,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는 신앙적 노래이다.

이 노래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된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죄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노래는 단순한 감성적인 노래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처럼 들린다. 특히 이 노래는 웨슬리언 신앙의 핵심 정신과 깊이 맞닿아 있다.

1. 인간 마음속의 가시나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기독교인의 삶’ 읽기를 좋아한다

신성욱 교수

아신대 설교학



리스도인을 읽는다.”

다음은 19세기 미국의 언론인이자 작가였던 윌리엄 탐스(William J. Toms)의 말이다. “Be careful how you live; you may be the only Bible some person ever reads.” “어떻게 사는지 조심하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든 그가 읽는 유일한 성경일 수도 있다.”

위의 이 문장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다음과 같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직접 읽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기독교인을 평가한다. 그래서 성도의 삶 자체가 살아 있는 성경이 된다.”

이 생각은 성경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못사람이 알고 읽는 바리”(고후 3:2-3).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읽는 편지라는 의미이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착한 행실이라는 빛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 위의 내용처럼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았다. 금세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내가 참 좋아하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에릭 리델(Eric Liddell)이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확실시되던 100m 경기의 예선전이 주일에 열리자, 그는 출전을 거부했다. 당시 영국 언론은 그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합니다.”

경기에 나가지만 하면 금메달은 때론 당연인데, 주일성수를 위해 그것을 포기했다.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그를 향한 영국의 기대는 순식간에 실망과 비난과 분노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주 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다른 선수 대신 출전해서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땀다. 그에 대한 영국의 비난과 분노가 이전보다 더 큰 찬사로 바뀌었음은 물론이다.

이후 그의 출생지는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중국에 선교사로 떠나간다. 거기서 그는 환자들과 불쌍한 이들을 섬기다가 병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삶은 ‘Chariots of Fire’(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의 신앙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에릭 리델이야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모범적 삶으로 복음을 전했던 모델이다. 그렇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기보다는 그것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의 삶 읽는 것을 더 좋아한다. 오늘 나는 그들에게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삶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조용히 점검해 보자.

유앙젤리온, 복음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길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받을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빼앗아가는 악한 마귀 사단을 향한 승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복음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탄생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뿐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은혜와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결국 이 같은 복음의 세 가지 관점을 생각할 때, 복음은 승리의 소식이며, 새 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위대한 선물의 소식입니다. 유앙젤리온, 복음을 가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말꽃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고, 거친 말을 심으면 가시가 돌아옵니다. 최근 김재원 아나운서가 쓴 『말꽃』을 읽었습니다. 저자는 KBS에서 30년 넘게 '말'과 더불어 살아온 방송인이자 에세이 작가이며, 지금은 한세대학교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말꽃』은 말을 잘하는 기술을 넘어, 말이 사람의 마음에 남기는 흔적을 깊이 성찰하게 하는 책입니다. 쉽지만 깊고, 진솔하면서도 울림이 있는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은 말이 어떻게 꽃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인문 에세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이 꽃이 될 수 있을까요? 책이 전해주는 몇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말을 할 때는 씨앗을 심듯이 말해야 합니다. 말은 공기 중에 흩날리지만, 마음에는 뿌리를 내립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공기로 흩날립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말이 마음에는 자리를 잡습니다. 어느 마음에서는 말꽃으로 피고, 어느 마음에서는 말뚱으로 박힙니다. 내 말이 당신의 마음에서 꽃으로 피어나기를 오늘도 조용히 바랍니다.”(김재원, 『말꽃』, 달빛는토끼, 29쪽). 한 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서 꽃이 될 수도 있고,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심는 말이 누군가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할 때마다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신

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내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서 꽃으로 피어나기를 조용히 기도하며 말해야 합니다.

둘째, 말을 할 때는 정원을 가꾸듯이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정원사가 없는 정원은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아름다운 정원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정원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말을 심고 가꾸느냐에 따라 인생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날마다 좋은 말을 심고, 쓴 뿌리와 같은 생각은 뽑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잡초 하나가 정원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말을 할 때는 숙고(熟考)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숙고(熟考)는 ‘익을 숙(熟)과 생각할 고(考)의 합성어입니다. 충분히 익은 말은 향기를 품습니다. 그러나 덜 익은 말은 상처를 남깁니다. 숙고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을 때도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침묵합니다. 그 짧은 침묵이 관계를 지켜 줍니다.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약 1:9).

말은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말은 다리를 놓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합니다. 짧은 순간의 반응이 평생의 관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익은 말, 향기로운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말을 할 때는 말의 능력을 기억하며 말해야 합니다. 말에는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

하셨습니다(히 11:3).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우리 역시 말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내뿜는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평강의 집이 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한 말속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잠 18:21).

예수님께서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8:11). 예수님은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언어는 단지 옳은 말을 넘어서 사랑을 세우고, 치유하고, 빛을 비추는 말입니다. 복음의 말은 소망을 심는 말입니다.

다섯째, 말을 할 때는 품격(品格) 있게 말해야 합니다. 품격(品格)은 물건의 등급과 격식의 합성어입니다. 품격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사람의 됴됨이에서 느끼는 풍모(風貌)를 의미합니다. 풍모란 한 사람의 삶과 내면에서 배어 나오는 전체적인 형상을 의미합니다. 품격(品格)의 품(品) 자에는 ‘입구(口)가 세 번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출중해도 그 사람이 쓰는 말이 거칠고 천박하면 품격이 떨어집니다.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아름답게 만드는 길은 아름다운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됴됨이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 결정됩니다. 언필곱 곧 인품이며, 언필곱 곧 품격입니다.

품격의 핵심은 절제에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너무 지나친 치장을 삼갈 줄 압니다. 적절한 옷에 적절한 액세서리를 할 줄 압니다. 또한 말을 할 때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않습니다. 절제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말을 할 줄 압니다(잠 25:1). 말을 하는 중에 잠시 침묵할 줄 압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라가며 자기주장을 억지로 주입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말꽃』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 우리의 언필곱과 인필곱이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말이 너무 거칠어졌습니다. 말꽃이 아니라 말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복음의 언어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와 선교사와 지도자들이 향기로운 말을 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을 심는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교회가 따뜻해지며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복음의 언어를 심어, 향기로운 말꽃이 이 땅에 가득 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社說

22대 차별금지법안이 역대 최악인 이유

22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28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다. 주최 측은 이날 서울시의회부터 대한문 구간에서 국민 통합대회를 진행한 뒤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를 행진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내포된 위헌성을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거룩한 방파제 준비위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국민통합대회를 개최하는 목적과 한국교회가 왜 이 법안에 반대하는지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는 최근 진보당 손승 의원과 정의당 정준생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제재 수위와 종교·표현의 자유 침해에 있어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하고 한국교회뿐 아니라 온 국민이 나서 막아야 할 당위성을 밝혔다.

거룩한 방파제 측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을 역대 최악이라고 진단한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재 강도에 있다. 과거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비판을 금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법안은 강한 제재 수위를 동원해 신앙적양심적·학문적 소신을 억압하고 압박에 내지 못하도록 강제하려는 데 있다는 거다.

대표적인 예로 ‘부정적 관념을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규정한 걸 들 수 있다.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자체를 정신적 고통을 안긴 것으로 규정하겠다는 거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가르

침에 따라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설교나 신앙적 가르침도 차별로 해석돼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최악은 모호하기 짝이 없는 정신적 고통에 과도한 징벌적 배상을 안기겠다는 발상이다. 누군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등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식이다. 돈 많은 사람은 동성애를 비판하고 돈 없는 사람은 그 입을 다물라는 건가.

앞서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마나에서도 차별금지법안의 위헌성과 사회적 폐해를 지적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조영길 변호사는 “22대 차별금지법은 역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 가운데 제재 강도가 가장 무겁다”며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신앙적·양심적·학문적 소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중대하게 억압하는 독재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별이나 인종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차별은 엄격히 금하는 게 인권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정신이다. 하지만 성적지향은 선택 가능한 외적 행동 양식에 속한다. 이걸 차별금지 사유로 삼는 건 가치관에 대한 정당한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더구나 이런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비우하고 저급하기 짝이 없다.

‘LGBT’ 허가하고 ‘아동인권’ 외면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희수 씨 이틀의 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허가 신청이 접수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하지만 같은 날 다른 두 인권단체에 대해선 반동성애 활동이 이유로 불허해 중립성 위반 시비가 일고 있다.

변희수 재단 설립 건은 지난해 5월 준비위원회가 인권위에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한 후 당시 김용원 상임위원이 반대해 퇴장하는 등 심의가 마뭉쳐 왔다. 그러다가 지난달 김 위원이 퇴임하고 준비위 측이 행정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심의가 재개된 거다.

지난 5일 열린 상임위에서 위원들은 3건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건을 논의한 끝에 변희수 재단 설립 건만 가결했다. 함께 올라온 ‘원가정아동인권협회’와 ‘중독회복지인권재단’ 설립허가 건을 상임위원 2명의 반대로 기각 처리했다. 인권위원들이 두 단체의 설립허가를 기각한 건 구성원 중에 반동성애 활동가가 있다는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아동 인권 보호와 약물중독 등의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에 이른바 반동성애 프레임은 씌운 거다.

인권위가 이들 두 단체를 반동성애 활동으로 판단한 근

거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활동가가 포함돼 있다는 게 유일하다. 기각 사유가 사단법인 설립요건 미비라면 모를까 구성원들의 동성애 반대 활동을 문제 삼은 거라면 중립성 위반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기관이다. 이런 기관의 인권 기준이 동성애, 성 소수자에 머물러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트랜스젠더 보호 재단 설립은 허가하고 아동인권 단체 설립을 불허하는 게 오늘날 인권위의 정체성이라면 차라리 인권위 간판을 떼고 성소수자보호위원회로 개칭하는 게 낫지 않겠나.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가독시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50여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인권위원들과 인권위 직원들의 맹목적 LGBT 옹호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며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인권위라면 적어도 아동 인권을 외면하는 결정은 하지 말아야 했다. 인권위가 LGBT 인권 옹호에 매달릴수록 국민의 인권은 소외지대가 되고 역할이 심화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식으로 보편적 정서와 신뢰에서 멀어지다 국민에게 영영 손절 당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구독문의 02-739-8119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광고문의 010-2700-3297	
구독신청	대표구좌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

독자께서 기사화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02-739-8119 또는 press@cdaily.co.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시 내용은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기사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한동대, AI로 시각장애인 웹 탐색 시간 절반 이상 단축

WE-Meet 프로젝트 대상 수상... 웹 접근성 개선 시스템 개발

한동대학교(총장 박성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시각장애인의 웹사이트 탐색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이는 성과를 거두며 '2025 WE-Meet 프로젝트'에서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WE-Meet 프로젝트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Convergence and Open Sharing System)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과 전공 간 연계를 기반으로 현장 중심 문제 해결 능력과 융합형 사고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올해는 COSS 사업에 참여한 18개 컨소시엄에서 총 54개 팀이 참여해 산업 및 사회 현장의 실제 문제를 주제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대상을 받은 'HeartyBridge' 팀은 임지훈·이주환·한수정 학생 등 한동대 학생들로 구성됐다. 이들이 개발한 시스템을 실제 시각장애인 사용자에게 적용한 결과 평균 웹 탐색 시간은 124.98초에서 52.64초로 약 57.9% 단축됐으며, 평균 탭

(Tab) 이동 횟수도 150회에서 39.6회로 약 73.6% 감소했다. 기존에는 웹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수백 번의 키 입력이 필요했던 시각장애인의 부담을 AI 기술을 통해 크게 줄였다는 평가다.

이번 연구 성과는 한동대 AI융합학부 전재영 교수의 지도로 수행된 'AI 기반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 자동화 시스템 개발과 실증 연구'를 통해 이뤄졌다. HeartyBridge 팀은 스크린리더 호환성이 낮은 웹 구조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겪는 과도한 탭 이동 문제에 주목하고, 웹페이지 구조 자동 재구성, 탐색 효율 향상, 이미지 대체 텍스트 보완 기능을 통합한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후 K-MOOC(교육 서비스)와 쿠팡(이커머스)을 파일럿 대상으로 적용해 개선 전후 효과를 검증했다.

해당 시스템의 핵심은 사용자가 접속한 웹페이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변환하는 기능이다. 정적 크롤링 방식의 한계를 넘어 클라스크롤-

필터 등 동적 상호작용 상태까지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Large Language Model(LLM)을 활용해 HTML·CSS·JavaScript 구조를 분석하고 WAI-ARIA 속성을 자동 삽입해 스크린리더 친화적인 페이지를 생성한다. 또한 Vision Language Model을 통해 이미지를 서술형 텍스트로 변환해 시각 정보 부족 문제를 보완했다. 불필요한 광고와 반복 배너는 후순위로 이동하거나 제거하고, 시맨틱 블록 단위 재배치와 접합-펼침 구조를 적용해 탐색 경로 자체를 줄인 것도 특징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웹사이트 제작 단계에서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 측에서 실시간으로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HeartyBridge 팀 임지훈 학생은 "수백 번씩 키를 눌러야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현실을 보며 웹 접근성 문제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번 경험을 출발점으로 기술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동대 HeartyBridge팀이 2025 WE-Meet 프로젝트에서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동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재영 교수는 "학생들이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이나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시각장애인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공감하며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해 나

간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이 같은 연구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인성과 공학적 역량을 함께 갖춘 전인재를 갖추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지동 기자

시민참여기본법·고향사랑기부제 제도 변화 논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세미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시민참여 제도와 기부 정책의 변화가 비영리 섹터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고향사랑기부제 확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기부문화의 제도적 환경 변화를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오는 17일 '비영리 섹터 환경 변화와 제도 동향'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시민참여기본법과 고향사랑기부제를 둘러싼 정책 변화가 시민사회와 비영리 조직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향후 비영리 섹터가 대응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최근 정부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고향사랑기부제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시민 참여 확대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비영리 조직의 역할과 활동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논의...정책 참여 확대 위한 제도 마련

시민참여기본법은 시민이 정책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정

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이 추진되는 배경과 법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제도적 과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소연 사단법인 시민정책위원장은 이번 행사에서 시민참여기본법(안)의 추진 배경과 핵심 내용,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 제도가 실제 정책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논의는 최근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정책 참여 확대 요구와도 맞물려 있다. 시민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시민사회와 비영리 단체의 활동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확대 논의와 기부문화 변화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확대 논의와 그에 따른 기부문화 변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됐으며 시행 이후 꾸준히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1천5백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제도 확대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팀장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확대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에서는 제도의 운영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그리고 기부문화에 미칠 영향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 섹터 환경 변화와 대응 과제

이번 세미나는 시민참여기본법과 고향사랑기부제라는 두 가지 정책 변화가 비영리 섹터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자리이기도 하다.

정진경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과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삼임변호사는 토론을 통해 제도 변화에 따른 비영리 섹터의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 참여 확대와 기부 제도 변화가 비영리 조직의 활동 영역, 시민사회 참여 구조, 기부문화 형성 방식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고향사랑기부제 확대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비영리 섹터의 역할과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세미나 주최 측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사회와 비영리 조직이 앞으로의 정책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최승연 기자

홀트, 취약계층 통합위기지원사업 '또 하나의 가족' 추진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는 대구·부산·인천·충청지부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위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위기지원사업 '또 하나의 가족'을 전국 단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적 불안과 가족구조 변화로 인해 소득·건강·돌봄·주거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은 초기 위기가 생계 위협이나 돌봄 공백 등 심각한 문제로 확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홀트아동복지회는 그동안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수행해 온 현장 중심의 전문성과 통합 사례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공적 지원체계의 시간적·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통합 위기지원사업 '또 하나의 가족'을 추진하게 됐다.

2024년부터 대전·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해 온 위기가정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기반으로, 2026년부터는 본 사업을 통해 사업 범위를 전국 지방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한 민간 차원의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응급 위기 상황으로 보호와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심라정서 지원비, 교육비 등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경제·건강·돌봄 영역의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정은 대상으로 긴급성과 개별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충청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의 심화를 예방하고 가족 기능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 및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비롯해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 긴급 통합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가정, 위기임산부 및 영아 양육 가정, 자립준비청년 가구 등이다. 필요 시 지원 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해 보다 유연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은 "복합적인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위기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에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기능 강화와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참여자 모집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신청방법은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참여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홀트아동복지회 대구·부산·인천·충청지부로 하면 된다.

한편, 70여 년간 복지 현장의 중심에서 나눔과 돌봄을 실천해 온 홀트아동복지회는 오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가정 아동,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장애인, 지역주민, 해외 취약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최승연 기자



www.e-construct.co.kr

여러분의 욕실 문화를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성능은 물론 디자인까지 좋은 제품만을 공급합니다

욕실 관련 전 제품을 수입 유통하는 욕실용품 전문회사 이견비앤코

대표 최훈용 경기도 군포시 건건로 243-6(대야미동) 031-438-2576

욕실자재 전문회사
이견비앤코(주)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환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오섭 목사

문의전화 : 010-9166-5600, 010-8652-5600

TEL : 031-439-5555 FAX :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 moon4903012@hanmail.net

천혜의 자연환경, 영동 풍성기도원 매매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479-8 외 1건 (영동역 5~10분 거리)
 -규모: 토지: 834평 / 건물: 180평 (철근콘크리트조)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수용 가능.

[시설 현황]

1. 제1·2성전, 방 10개(에어컨 완비), 기도실 5개, 화장실 7개, 주방 3개,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2.바로 앞 시냇물(수영 및 낚시 가능)

[특별 혜택]

1. 운영비 제로: 태양광(9kw) 및, 지하수 사용으로 전기·수도료 무상 수준.
 - 2.성물 무상 양도: 강대상, 음향, 피아노, 의자 등 물론 으면 즉시 운영 가능
- 매매가: 9억원 (답사 후 협의 가능 / 용도변경 가능)

[급매] 경북 영주 교회 및 주택 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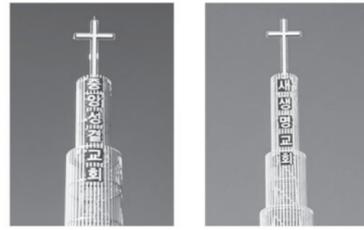
-위치: 영주시 가흥동 637-7 외 1필지
 -규모: 대지 62평 / 건물 50평
 -매매가: 1억 3천만원

매/매/문/의

010-9679-8275, 010-9883-8275

NAVER 검색창에서 **충만기업** 을 치세요

충·만·기·업



- ◆ LED 설치 및 네온수리 전문
- ◆ 종탑, 종각, 파이프탑 시공
- ◆ 각종 구조물탑 시공
- ◆ 대형십자가, 소형십자가 시공
- ◆ 각종탑 철거, 이전

TEL: 02-802-2005 H.P: 010-5276-9049
 FAX: 02-806-3334 (경남지점) 055-942-1038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795-17 / 대표: 정현석 집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대표 김 덕 검 목사

-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기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터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교회성장을 위한 전국순회집회

-교회 성장의 갑급한 목회자와 교회개혁을 준비하는 목회자 위한 전국 순회 집회-

지역	일시	장소	대표인력
대전	25.12.12(금)-13(토)	대전 참소망교회(담임 박주예목사) 주소:대전 중구 수침로111번길 33	강성은 목사 010.2211.7139
서울 경인 강원	26.01.19(월)-20(화)	인천 감단비전교회(담임 박종민목사) 주소:인천 서구 환경로188번 2길 12	이수화 목사 010.9407.7226
부산 울산 경산	26.01.22(목)-23(금)	부산 향기로운교회(담임 김양덕목사) 주소:부산 사하구 율곡로14번길 62(다대동)	김양덕 목사 010.9155.0191
서부지역	26.01.26(월)-27(화)	태안 에덴교회(담임 김순남목사) 주소:충남 태안군 태안읍 샘골 4길 29	김순남 목사 010.6477.2827
충북 청주	26.01.30(금)-31(토)	청주충신교회(담임 엄광섭목사) 주소:청주시 청원구 율봉로202번길 69	엄광섭 목사 010.4410.9115
전북 광주	26.03.05(목)-06(금)	완주 에덴교회(담임 양정옥목사) 주소:전북 완주군 비봉면 다리실길 31	양정옥 목사 010.6542.2661
전남 충남 경기 세종	26.03.09(월)-10(화)	천안 회복교회(담임 이종익목사) 주소: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1길 3-12	박진우 목사 010.6314.3783
제주	26.03.20(금)-21(토)	제주 글로벌아교회(담임 김홍식목사) 주소:제주시 광양11길 2, 4층	이승우 목사 010.9969.6875

강사소개	강사명	주요역할
	양정옥 목사	예식성장교회부흥사 / 성장교회예식반
	곽윤관 목사	행복목회사역
	한영동 목사	목회교침사관학교 / 120명 자립교회
	정해숙 목사	말씀전도 부흥사 / 전도훈련
	홍지영 목사	부흥사 / 영성훈련
	임동호 목사	좋은교회운동본부 / 목회 AI활용법, 찬양
	오준실 목사	이야기하는 조직신학

주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개혁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인양비산동 교회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AI VOCA 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60개 언어 번역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시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토익등 대용량 단어장

AI 시대, 교회는 알고리즘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신간 '알고리즘에 길들여진 믿음'



인공지능(AI)과 소셜미디어가 일상의 중심이 된 시대 속에서, 디지털 환경이 인간의 신앙과 영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책 《알고리즘에 길들여진 믿음》이 출간됐다. 이 책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지배하는 알고리즘이 현대인의 사고 방식과 신앙 생활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신학적·윤리적 관점에서 진단한다. 저자는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인간의 삶과 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공지능 기술은 불과 몇 년 사이 일상의 보편적 현실이 됐다. 특히 코

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기술의 도입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교회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충분한 신학적 성찰 없이 기술을 급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책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지털 기술의 중심에 있는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분석한다. 알고리즘은 사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며 편의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시선을 붙잡고 생각과 판단의 구조를 은밀하게 형성한다. 저자는 이를 “보이지 않는 목자”에 비유하며, 현대인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알고리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인간의 사유 방식이 점점 더 비판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취향과 의견을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기보다 기존 믿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도 불구

하고 실제 지식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 낸다고 책은 분석한다. 책은 또한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7대 죄악’이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로 재현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교만, 시기,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음욕 등 인간의 고전적인 죄성들이 온라인 공간에서는 더욱 증폭되고 교묘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익명성과 즉각적인 반응 구조 속에서 인간은 쉽게 분노를 표출하고,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질투를 느끼고, 끊임없는 콘텐츠 소비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나태’에 빠지게 된다는 분석이다. 저자는 특히 현대 사회에서 ‘게으름’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게으름으로 보았지만, 오늘날에는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움켜쥐고 정보를 소비하는 상태가 새로운 형태의 게으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게으름’은 실제로는 더 깊은 무기력과 피로로 이끈다고 책은 지적한다. 최승연 기자

역경의 파도 앞에서 파도타기 서핑 선수가 되는 법

신간 '사연 많은 나무가 작품이 된다'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한 목사가 병상에서 경험한 고통과 치유의 여정을 담은 책 《사연 많은 나무가 작품이 된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 위기, 뇌종양 긴급 수술, 폐암 4기 진단 등 삶의 위기 속에서 저자가 경험한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믿음과 희망을 진솔하게 기록한 증서다. 저자는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을 위기를 겪은 데 이어 뇌종양 수술을 받았고, 이후 폐암 4기 진단을 받으며 생존 가능

성이 제한된 상황에 직면했다. 생존 예상 기간 38개월이라는 의료진의 진단 속에서 항암 임상 실험, 표적 치료제, 세포독성 주사, 방사선 집중 치료 등 다양한 치료 과정을 거처야 했다. 이 과정에서 찾아온 무기력과 마비, 메스꺼움 등 극심한 부작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며 신앙의 의미를 다시 붙들었다. 책은 이러한 병상 체험을 단순한 투병 기록이 아니라 영적 성찰의 과정으로 풀어낸다. 저자는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앞두고 있던 시간 동안, 자신처럼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집필했다고 밝힌다. 특히 책에는 저자가 수술대 위에서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천국 체험 이야기와 제주도 사려니 숲에서 목격한 ‘구멍이 뚫

린 나무에서 새싹이 돌아오는 장면이 상징적으로 등장한다. 상처로 인해 속이 비어버린 나무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모습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은 다시 자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책 속에서 저자는 고통을 마주한 인간의 심리 변화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저자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발견한 한 가지 진리를 강조한다. 인생에는 누구나 상처와 사연이 있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닌 작품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다. 저자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란다 말한다.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들, 삶의 역경 속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다. 최승연 기자

한국VOM, 성경적 복음 메시지 조명한 『복음』 출간



한국순교자의소리대표 현수 폴리, CEO 에릭 폴리, 한국VOM가 『복음』의 성경적 의미를 다시 조명하는 신간을 펴냈다. 단체는 최근 CEO인 에릭 폴리 목사와 현수 폴리 대표가 공동 집필한 책 『복음(The Gospel)』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는 순교자의 소리가 운영해 온 6개월 과정의 ‘지하 신학교(Underground Seminary)’ 교육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된 것이다. 폴리 목사는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복음’의 설명 방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문제-해결-혜택” 구조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방식은 인간의 죄를 문제로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해결책으로 설명하며, 그 결과로 천국

이라는 혜택을 약속하는 형태다. 그러나 폴리 목사는 이러한 전달 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의 본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앙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복음은 인간의 필요를 중심으로 구성된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선포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이다. 폴리 목사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현대적인 방식의 복음 설명보다 오히려 더 분명하고 깊이 있는 메시지”라며 “그 핵심 내용은 책의 표지에 담긴 여섯 가지 신앙 고백으로 정리돼 있으며, 책 전체가 이 내용을 해설하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약 300쪽 분량의 이 책은 복음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핵심 고백을 중심으로 각 장에서 신학적 의미를 설명한다. 노형구 기자

그는 또 성경적 복음 선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종교개혁 전통의 표현인 “Praedicatio Verbi Dei est Verbum Dei(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언급했다. 복음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전해질 때, 그 선포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폴리 목사는 “성경적 복음은 단지 개인의 죄 사함에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원수들을 물리치신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를 선포한다”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은 세상에 자비를 전하는 메시지로 선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간 『복음』은 한국 순교자의 소리 사무실(02-2065-0703)을 통해 전화로 주문할 수 있으며, 단체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영어판은 올해 말 출간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3월, 작가들의 말말말



바울이 골로새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은 고상하다. 그는 골로새 신자들이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에 이르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도덕적 결단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느 것 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지위와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 특히, 우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창조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온 우주만물을 만드시기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바울은 골로새서 1:11-14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 소개하고, 그 다음 단락(골 1:15-23)에서 성자 하나님의 정체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단락 구성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매우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감격하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울리며 살아가게 한다. 이기운 '골로새서 해설'



시적으로 지상의 육신에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했던 헬레니즘의 이원론적 인간 이해와 달리 살아있는 존재, 즉 영혼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 몸으로부터 생동화되는 창발적 존재로 이해했던 고대 히브리인들의 인간 이해는, 정신 또는 마음으로서의 인격 또는 자아가 몸으로부터 창발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오늘날 과학의 창발적 인간 이해와 공명 가능하다.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는 전 우주적인 창발적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전체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자기의식을 지닌 자유로운 그리고 자신의 창조자를 알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셨다. 진화는 단지 결정론적, 기계적 과정이 아니라 창발적, 우연적 과정을 포함한다. 윤철호 '과학의 진실, 신학의 빛'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일은 심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의 일부였다(출 20:8, 신 5:12) 교파를 막론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개인적으로 또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주일에 교회에 출석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장에서는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 출석에 관한 신학과 실천 모두를 탐구할 것이다. 교회 출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관행에 관한 정보 대부분은 다수의 교회법령집에 나오는데, 이는 특정 교파 집단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문서들이다. 이러한 문서들은 규범적이어서, 어떤 일이 행해져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들이 실제로 일어난 행위와 일치한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교회법령은 교회재판소와 컨시스토리 기록 등 다른 문서들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개인과 주민을 교회로 이끄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커린 맥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크리스토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질문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가뭄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적게 울어낸 책입니다. 박효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날 새를 함께 하소서 기독교 교회사 (54)

교회는 이와 같은 사명을 진행함으로써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며 그들을 빛과 소금의 전사들로 양육하여 그들이 자신의 현재적 삶의 영역들에서 말은바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고 통치되고 관리되어지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만천하에 세워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한편 구속사적인 차원에서의 복음전파는 위와 같은 교회의 사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진다. 결국 인류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역사의 총체 또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역사 중의 한 영역이며 따라서 복음전파 역시 교회사명의 총체 또는 주체가 아니라 교회사명의 한 영역인 것이다.

메시아의 사명 완성

예수 그리스도교회의 역사 중에 가장 장엄하고 가장 거룩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사명 완성이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사역을 완성하는 역사적인 순간들을 통하여 숨겨진 진리를 밝히게 되고 계시의 영광을 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사역 완성은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에 사단은 참으로 곤경에 처해 있었다. 사단의 지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곧 어떤 어마어마한 역사를 전개하실 터인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그 역사를 진행하실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분명히 지금 어떤 어마어마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그 엄청난 역사의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도 확실한데 그 내용과 방법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었다. 만약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서 메시아 사명의 대역사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가뭇 유다를 통하여 그를 체포당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진행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고 느낌상 그때가 가까워짐에 따라 참으로 난리가 났던 것이다.

사단은 당시의 권력층이었던 왕을 비롯한 정부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열심당원 등등을 총동원

하여 그 내막을 알아내려 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하여 허락되지 않았다. 결국 다급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만 죽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판단 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하여 가뭇 유다를 이용하였고 제사장들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열심당원 등등을 총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였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 사단만세를 불렀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알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메시아 사명의 완결일 줄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마보 같은 사단의 한계와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멋진 경륜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법정인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후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정치적 관할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판은 허용되었으나 사형을 언도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금지되었고 그것은 로마 법정에서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형을 언도받게 하기 위하여 그를 로마의 법정에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명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종교적인 것으로서 신성모독죄였고(마 26:63-66) 다른 또 하나는 정치적인 것으로서 반란 기도 죄였다.(마 27:11) 제사장들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신성모독죄는 유대의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법정에서 유죄판결을 얻어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법정에서 세울 때는 반란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총독이며 재판관이었던 폰티우스 필라티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반란죄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총독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유대의 실권자들과 마찰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정권을 유대의 군중들에게 맡겼다. 당시의 유대군중들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대신 바라바를 선택 하였다. 하나는 잘 못된 메시아 사상이었고 다른 또 하나는 로마에 대한 적개심이었다.

유대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메시아가 도래하여 다윗과 솔로몬시대의 영광을 재현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메시아의 강림하심이 적어도 다윗 가문을 통한 귀족적인 강림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한 그들에게 초라한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자처하고 나셨을 때 그것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코미디였다. 그러나 그들이 목수의 아들을 무시하고 비웃는 사이에 사태가 이상하게 발전하고 있었다. 목수의 아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통로라고 선포 하더니 이제는 아예 자신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민초들을 상대로 하여 번두리광이나 빈들을 헤매던 그가 대중들이 따르는 것에 기고만장하여 이제는 감히 예루살렘성전까지 난입하여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제사장들을 훈계하고 드디어는 제사장들을 비롯한 바리새파 사두개인 등등의 민족적,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싸잡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면서 심판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섰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는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 계열로서는 도저히 참고 묵과할 수 없는 오만방자한 것이었다. 한편 로마의 학정에 대한 분노와 민족적 국가적 애국심에 불타는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사랑 타령이나 부르는 목수의 아들보다는 실력으로 로마와 대적할 수 있는 바라바가 더욱 요구 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형 죄의 명목으로 십자가 처형을 언도 받았다. 그러나 당시의 재판장이었던 폰티우스 필라티우스총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분명하게 선언하였다(마 27:24).

우리는 인류역사상 전무후무한 빌라도 법정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재판을 회상하면서 참으로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 재판장 스스로가 무죄를 선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죄함을 변론하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만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 한마디 변호 외에는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 아버지에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 26:39)라고 울부짖던 예수 그리스도는 정작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위한 한마디의 변호조차 삼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진리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몸소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완벽한 실제적 교육이었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로마법정을 다음과 같이 증거 한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탈무드의 지혜 혀(tongue)

어느 랍비가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하인은 혀를 사왔다. 이를쯤 지나서 랍비는 그 하인에게 오늘은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오도록 명했다. 그러자 하인은 또 혀를 사왔다. 이상하게 여긴 랍비가 하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왔고,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너는 똑같이 혀를 사왔다. 그 까닭을 말해 보겠느냐?" 그 하인의 대답은 이러했다. "혀는 아주 좋으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고 또 나쁘면 그보다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여섯 개의 쓸모 있는 부분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 세 가지 눈, 귀, 코는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고, 입, 손, 발 세 가지는 인간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라이프

족장들의 이동경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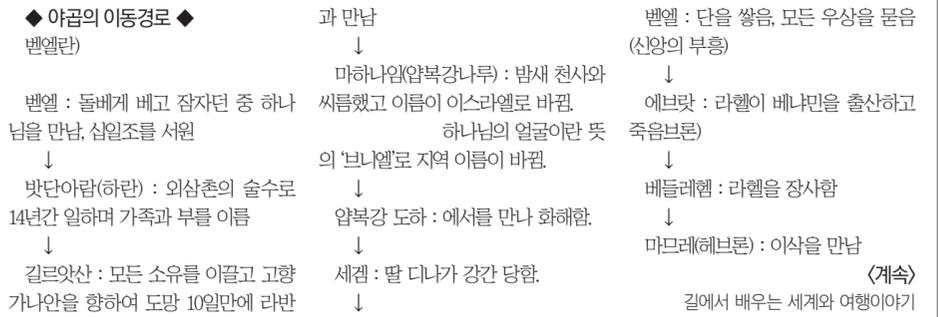


베들레헬 가는 길



베들레헬 광장

◆야곱의 이동경로◆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Hebrews 2:3 NIV</p> <p>how shall we escape if we ignore so great a salvation? This salvation, which was first announced by the Lord, was confirmed to us by those who heard him.</p> <p>☞ escape 뒤에 punishment가 생</p>	<p>락되어 있음</p> <p>- ignore: 무시하다</p> <p>- so great a salvation: 이처럼 위대한 구원</p> <p>- announce: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말하다</p> <p>- confirm: 확증(確證)하다</p> <p>- those who heard him: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p>	<p>히브리서 2장 3절</p> <p>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p> <p>카카오스토리 영어성경 독해 연습</p>
--	---	---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권혁승 칼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

날마다 말씀 따라 새롭게(128)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기록하시나이다”(시 22:3)

신앙을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신앙은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와 동행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어진 영적 연결고리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친밀한 사이였다. 그것은 죄를 범하고 숨어 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신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출로 가시면서 늘 함께 산책의 동반자 역할을 하였던 아담을 찾으셨다(창 3:9).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동행하시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창 17:1)고 명령하신 적이 있다. 여기에서 ‘행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히트할레크’는 함께 가나를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완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뎀’은 ‘완벽이 아닌 순수’를 뜻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은 각자의 개별적이고 사적인 모든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넓으면 넓을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그 때문이다. 그런 개별적 신앙생활이 공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다. 곧 예배는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신앙의 개체들이 정해진 시공간에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모임이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말씀과 찬송이다. 말씀과 찬송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두 중심 기둥이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라면, ‘찬송’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록한 예물이다. 선물인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우리가 예물로서의 찬송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 그러나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더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먼저 하



나님께 우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계시는 자이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였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기록하시나이다”(시 22:3) 여기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 세 개가 있다.

첫째는 ‘찬송’이다. ‘찬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데힐라’는 ‘자랑하다’와 ‘확신하다’는 뜻을 함께 지니고 있다. 찬송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일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랑하는 것은 확신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맘껏 높이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계시’이다. 여기에서 ‘계시’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아사브’는 ‘자리에 앉았다’는 뜻이다. 찬송은 곧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의자이다. 의자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 우리들이 앉으면 일반 의자가 되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앉으시면 왕좌가 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

신 주시는 하나님께서 찬송이라는 왕좌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왕좌가 된다.

왕좌는 가장 값지고 귀한 재료로 만든 걸작이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좌 역할을 하는 우리의 찬양이 최고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고의 찬양이란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기쁨을 다하여 최고의 완성도를 이룬 찬양을 의미한다. 찬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적일겠지만, 우리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빠지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찬양이 기도의 그릇에 담겨야 완성도 높은 찬양이 된다.

셋째는 ‘기록’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은 기록하신 분이시다. 기록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도쉬’는 ‘구별하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들과 구별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그런 점에서 찬양은 하나님을 기록하신 만왕의 왕으로 높여 드리는 역할을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가득 찬 구름으로 표현한다. 구름이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성령으로 충

만하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룩한 통로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임한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닫힌 영혼의 문이 열린다. 영혼의 문이 열리면, 그동안 저주로 막혔던 모든 것이 풀리게 된다. ‘저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라르’는 어원적으로 ‘묶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풀리면, 질방이 고침을 받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영적 해방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찬송의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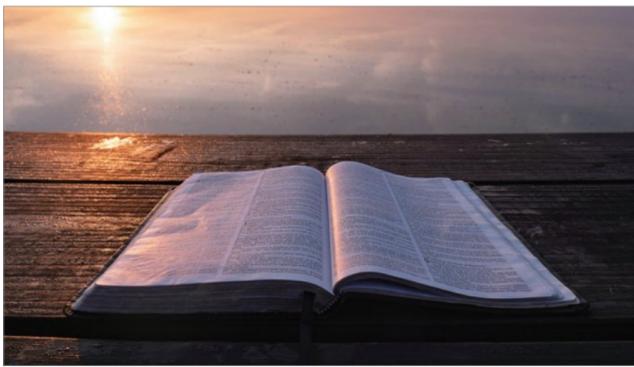
하나님의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깨우침이다. 말씀을 깨우치면 영혼의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찬송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전해 주신다. 그래서 찬양과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그만큼 찬양사역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일 예배에서 말씀 선포 바로 앞에 찬양대의 찬양 순서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오늘의 말씀

약속으로 이룬 복음의 빛

[좋은성경구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로마서 1장 2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의 근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이야기가 아니며,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도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두신 약속이었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속에서 예비되었고, 때가 차매 성취된 소식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셨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며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라 전했다. 복음은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자리였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요 3:16).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자리였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회의 길까지도 복음을 위한 준비로 사용하셨다. 로마제국이 닦아 놓은 길은 당시 사람들에게 제국의 필요 때문이라 여겨졌지만, 결국 그 길을 통해 복음은 세계로 전파되었다. 인간의 계획처럼 보였던 모든 일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었던 것이다. 철학과 사상, 문화와 제도의 흐름까지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예비가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복음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사랑의 성취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약속의 성취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고, 약속하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 살아가야 한다.

은혜 한 장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렸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6

But he gives us more grace. That is why Scripture says:
"God opposes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James 4:6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교계·선교·NGO 동향

교계

2026년 3월 12일(목) 한국 교계 주요 일정

시간	단체/기구	행사/활동명	장소
10:00	한국기독교총연합회(기장)	제396차 평화통일 월요기도회	강원 관동교회당
10:30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10회기 권역별 전도 정책 워크숍(서부권)	전주샘물교회
11:00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CTS 기독교TV 이사회 (총회장 참석)	CTS 본사
19:00	NCCK(교회협)	한국 그리스도인 에큐메니칼 평화기도회	서울 광화문광장
당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남아메리카 선교대회 (일정 개시)	코스타리카 및 니카라과

2026년 3월 12일, 한국 교계는 전도, 평화,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식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이날 국내외 군특수선교처 주관으로 '제110회기 권역별 전도 정책 워크숍(서부권)'을 개최한다. 오전 10시 30분 전주샘물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는 서부권역 노회 전도 실무자들이 참석해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총회장은 오전 11시 CTS 기독교TV 이사회에 참석하며, 같은 날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

에서 열리는 남아메리카 선교대회 일정도 개시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와통일위원회와 교회와사회위원회는 공동으로 저녁 7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한국 그리스도인 에큐메니칼 평화기도회'를 열고 전쟁 반대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강원노회 동부시찰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96차 평화통일 월요기도회'가 강원 관동교회당에서 진행된다. 노형구 기자

선교

2026년 3월 12일, 한국 선교계와 주요 연합단체들은 선교 훈련 개강과 전도 정책 워크숍, 평화 기도회 등 다양한 사역을 전국 각지에서 전개할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선교회

(GMS)는 12일 오후 7시 30분, 인천 계산교회 교육관에서 '제1기 인천선교회훈련'을 개강한다. 이번 훈련은 일반 과정과 사역자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수료자에게는 GMS 단기 선교사 자격이 부

여될 예정이다.

한국TEE선교회(KTEE)는 서울 지구촌교회에서 '미래를 새롭게 여는 말씀 소그룹' 세미나 1일차 일정을 시작한다.

지방 및 해외에서도 기도 사역이 이어진다. 부산 수영로교회에서는 전국 기도지도자들이 모이는 '2026 전국마마클럽 팀장모임'이 진행되며, WEC 국제선교회 광주지부는 저녁 7시 30분 첨단중앙교회에서 정기기도회를 갖는다. 해외에서는 워싱턴선한목자교회가 오후 8시 목요회복예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목회포럼은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다문화 정책의 동향과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오찬포럼을 개최한다.

주요 선교 연합단체들의 행정 사역도 계속된다. KWMA는 선교 교육 실무를, KWMC는 오는 5월 뉴욕에서 열리는 세계선교대회 사전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KWMF는 미주 선교사 데이터 관리 및 장학금 행정을, 인터서브 코리아는 온라인을 통한 가치 공유 사역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 3월 12일(목) 주요 선교 일정

시간	단체/기구	행사/활동명	장소
11:00	미래목회포럼	오찬포럼 (주제: 다문화 정책의 동향과 교회의 역할)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19:30~21:30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GMS	제1기 인천선교회훈련 개강예배 및 교육	인천 계산교회 교육관 3층
19:30	WEC 국제선교회	광주지부 정기기도회	첨단중앙교회
20:00	워싱턴선한목자교회	목요회복예배	워싱턴선한목자교회
종일	마마클럽	2026 전국마마클럽 팀장모임	부산 수영로교회 교육관
종일	한국TEE선교회(KTEE)	TEE 세미나 (1일차)	서울 지구촌교회

NGO

굿네이버스는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강사단의 현장 교육 활동을 진행한다. 월드비전은 지난 3월 2일 시작된 '2026 꿈업서그리기대회'의 전국적인 작

품 접수 일정을 이어간다. 초·중·고등학생들이 기후위기 등 세계적인 이슈를 직접 그리고 생각하는 이번 대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작품을 수령하며 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기대드림' 34차 위기 이주배경가정 긴급지원사업의 서류 접수 및 기관 신청 관리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오는 3월 15일까지 접수가 이어지는 만큼, 12일에는 신청 기관들에 대한 안내와 서류 보완 업무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현장 봉사 사역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일복지재단은 서울 등대문구 법포 나눔운동본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일 무상 급식 사역을 실시한다. 오전 9시 40분 식재료 준비를 시작

으로 11시 중식 배식, 오후 1시 식당 청소 순으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이외에도 열매나눔재단은 S-OIL과 협력하는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의 참여 기업 모집을 지속한다.

한국컴패션은 오는 6월 예정인 태국 비전트립 참가자 모집을 진행한다.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상반기 인력 및 봉사단 서류 접수를 관리한다.

한국해비타트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실사 및 계약 공사 일정을 수행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승연 기자

2026년 3월 12일(목) 국내 기독교 NGO 주요 일정

기관명	구분	세부 내용	현황 및 특이사항
굿네이버스		2026 세계시민교육 현장 교육 실시	중·고교 방방 기후위기 및 생명존중 교육
월드비전	캠페인	2026 꿈업서그리기대회 작품 접수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 (3/2-6/12 진행 중)
희망친구 기아대책	지원 사업	'기대드림' 34차 이주배경가정 긴급지원 접수	서류 접수 및 기관 신청 관리 단계
다일복지재단	현장 봉사	법포나눔운동본부 일일 무상 급식 사역	09:00-15:00 (배식 및 식당 정리)
열매나눔재단	공모 사업	S-OIL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모집	참여 기업 온라인 접수 (-3/23까지)
한국컴패션	해외 사업	2026년 6월 태국 일반 비전트립 모집	홈페이지 및 사육 상담 접수 (-3/31까지)
아프리카 미래재단	인력 모집	2026년 상반기 인력 및 봉사단 모집	온라인 서류 접수 진행 중 (-3/29까지)
한국해비타트	현장 /행정	지역 활성화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 실사	3.11 캠페인 사후 행정 업무 병행

'2026 부활절 퍼레이드·연합예배' 준비 본격화

광화문광장 퍼레이드·여의도순복음교회 연합예배
한국교회 하나 되는 부활 축제 기대

2026 부활절 연합예배와 2026 부활절 퍼레이드 준비 상황을 소개하는 합동 기자회견이 11일 오후 여의도순복음교회 세계선교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4월 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2026 부활절 퍼레이드'와 4월 5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되는 '2026 부활절 연합예배'의 준비 경과와 행사 계획이 소개됐다.

간담회에는 퍼레이드 조직위원회 대회장인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인 김정석 감독회장, CTS 기독교TV 공동대표이사인 이철 직전 감

독회장, 감경철 CTS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와 퍼레이드 조직위원회 대회장을 맡은 이영훈 목사는 영상을 통해 "이번 부활절은 퍼레이드를 통해 부활의 기쁨을 온 땅에 선포하고, 연합예배를 통해 죽음을 이겨내고 소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며 "두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한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거듭나는 부활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인 김정석 감

독회장은 "부활절 퍼레이드와 연합예배를 통해 전도와 기도가 함께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2026년을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물론 온 국민이 함께하는 부활 축제가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퍼레이드 대회장인 감경철 회장은 "분열의 상징이 된 광장에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축제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오는 4월 4일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리는 '2026 부활절 퍼레이드'에는 40개 팀, 약 8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퍼레이드는 '약속의 시작(1막)', '고난과 부활(2막)', '한반도와 복음(3막)', '미래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합동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장지동 기자

의 약속(4막)' 등 총 4막 14장면으로 구성돼 성경의 대서사와 한국교회의 역사를 함께 담아낸다.

특히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주제 공연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승천의 이야기를 전문 연출가와 배우들이 참여하는 뮤지컬 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

다. 퍼레이드 이후에는 세종대로 거리에서 참가자들이 '살아계신 주' 대합창을 진행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눌 계획이다.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놀이·전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상설 부스 '이스터 빌리지'가 운영된다. 이어

오후 7시 30분부터는 열린 음악회 '조이 풀 콘서트'가 열려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한편,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k-easter.com) 또는 전화(02-6333-10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지동 기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국도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UBF 북미 스태프 컨퍼런스 열려... 120개 지부 사역 나눔

“사랑의 공동체로 세상 변화 기대”

대학생성장기독교교회(UBF)는 얼마전 4일 동안 미국 시카고 오페라 공향 인근 포 포인트 호텔에서 ‘2026년 북미 스태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륙별 지부장 수양회를 마친 뒤 이어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였다. 개최 메시지는 Bob Henkins 목자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바탕으로 ‘사랑은...’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이어 주강의에서는 Ron Ward 목자가 요한복음 13장을 본문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했다.

Ron Ward 목자는 이 메시지를 이번이 열 번째로 전하는 것이라고 소개하며,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개인도 행복해지며 공동체와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Mark Moran 목자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본문으로 ‘Love in Action’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참가자들은 이 말씀들을 통해 주님이 서로 사랑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 지, 사람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며 사랑은 실제적인 희생을 포함한다는 의미를 배웠다고 밝혔다.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주목할 만한 지부 사례 발표와 본부 연례 보고가 있었으며,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릴 예정인 Young Adults Conference 소개와 기도 제목 발표도 이어졌다. 사례 발표 가운데서는 한 가정만 있는 지부들이 한 달에 한 번 온라인으로 교제와 배움의 시간을 갖는다는 내용이 소개돼 가정교회 형태가 많은 북미 지역에서 인상적인 발표로 주목받았다.

이 밖에도 영적 부흥을 주제로 한 초청 특강이 진행됐으며, 선교사 목자 수양회에서 발표할 북미 지역 전략 발표(Joshua Hong, Philip Wong, Spencer Luebben)와 테이블별 토의 및 의견 수렴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지난 2년간 본부의 교육-훈련 과정인 ‘Emerging Leaders Cohort’를 마친 젊은 목자 5명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아울러 지역을 섬긴 공로로 트랜트 지역의 김모세 선교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시니어 선교사 인생 소감 발표 시간에는 뉴욕 지부를 섬기고 은퇴한 데이빗 백 선교사와 조이 백 선교사 부부가 발표를 맡아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수양회 기간에는 김노헤미야 목자와 이제임스 목자가 World Mission Congress(WMC)와 선교사 목자 수양회



UBF 2026 북미 스태프 컨퍼런스 진행 사진. ©UBF

에 대해 소개하고 참가자들을 초청했으며,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다.

행사 이후 한국에서 온 목자들은 캠퍼스를 방문해 심방하고 시카고 주일예배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노헤미야 목자는 WMC의 의미를 설명하며 참석을 독려했다.

UBF 측은 북미 스태프 수양회가 때마다 더욱 체계적이고 풍성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북미 지역에는 미국 99개 지부와 캐나다 21개 지부 등 총 120개 지부가 있으며, UBF 전체 선교사의 약 절반이 이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

또한 북미 지역은 UBF 사역에서 ‘복의 근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번 World Mission Congress에 북미에서 350명 이상의 선교사와 목자들이 참여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5월 말에는 북미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는 NAYA(North American Young Adults)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다. 약 45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Who is Jesus?’라는 주제로 북미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주최 측은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북미 영적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북미 스태프 컨퍼런스는 내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지동 기자

목원대 웨슬리신학대학원, 제45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2026학년도 1학기 개강채플 함께 열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사역자 되길”



목원대 웨슬리신학대학원 제45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참석자 단체 사진. ©목원대

목원대학교 웨슬리신학대학원은 제 45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2026학년도 1학기 개강채플을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롭게 배움의 길에 들어선 신입생과 편입생을 환영하고 한 학기의 영적·학문적 방향을 함께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신학대학원 소개와 학사 안내, 교육과정 설명이 진행돼 원생들이 학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원우회 주최로 레크리에이션이 열려 참석자들이 서로를 알아가며 공동체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웨슬리신학대학원 측은 웃음과 나눔 속에서 참석자들이 동역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전한소망교회(노만호 담임목사)가 준비한 기념품이 신입생과 편입생들에게 전달되며 따뜻한 환영의 마음을 전했다.

2부 개강채플은 찬양과 기도로 시작

됐다. 김철성 원장은 “신학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라며 “사역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위에 세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학기 동안 모든 수업과 훈련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 여정이 되기를 축복했다.

웨슬리신학대학원은 이번 학기부터 지앤엠문화재단(Grace & Mercy Foundation)이 제공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인 PRS(Public Reading of Scripture)와 북클럽 JSU(Just Show Up)를 채플과 수업, 학회 및 동아리 시간에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가 함께 성경 말씀과 기독교 서적을 읽고 토론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훈련을 진행해 학문과 경건이 조화를 이루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방침이다.

교수들과 원생들은 새 학기를 시작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어 권진호 신학대학 학장의 폐회 기도로 공식 일정이 마무리됐다.

한편, 대전중앙감리교회(담임 박세영 목사)는 점심식사로 뷔페를 제공하며 식탁 교제를 통해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정지동 기자

BTF 푸른나무재단 김종기 명예이사장, ‘협성 사회공헌상’ 수상

우리 시대의 숨은 의인(義人)을 찾는 등불, 협성사회공헌상... 31년 학교폭력 예방 공로 인정



푸른나무재단 김종기 명예이사장이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단체 측 제공

대한민국 최초로 학교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온 청소년 NGO, BTF 푸른나무재단(설립자명예이사장 김종기)은 최근, 김종기 명예이사장이 협성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협성사회공헌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협성사회공헌상은 부산의 대표적 향토 기업인 협성종합건설 정철원 회장이 막대한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협성문화재단의 핵심 공익사업이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평생 근검절약을 실천해 온 정 회장은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과업으로 선언한 모범적 리더다. 협성사회공헌상은 이러한 정 회장의 철학을 담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인물을 발굴해 격려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했다.

김 명예이사장은 국내 최초로 학교폭력 문제를 시민사회에 알리고, 지난 31년간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명예이사장은 특히 자식을 잃은 참척의 고통을 이겨내고 다는 학교폭력으로 눈물 흘리는 학생과 학부모가 나오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치유 상담, 국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47만 명 서명 운동을 통해 관련 법률 제정을 이끌어낸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부산 동구 협성 마라나G7 내 북두칠성도서관에서 열렸으며, 상금은 5,000만 원이다. 협성문화재단 설립자인 정철원 회장은 시상식에서 “김 명예이사장은 학교폭력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묻은 아픔을 이겨내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수많은 아들을 구한 장한 아버지”라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31년 동안 해오신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라고 강조했다.

김종기 명예이사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상은 지난 30년 황무지에 푸른 나무를 심기 위해 흘렸던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땀에 대한 따뜻한 위로”라며, “먼저 떠난 아들과의 약속이자 아버로서의 숙죄의 길이었기에 고통 속에서도 멈출 수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 명예이사장은 “오직 진정성과 투명성으로 바뀐 우리 활동가들과 후

원자들이 이 상의 진짜 주인공”이라며, 특히 직접 재단을 방문해 격려해 준 정철원 회장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이 마음껏 꿈꾸고 밝게 웃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BTF 푸른나무재단은 1995년 전국 최초 학교폭력 상담전화로 시작으로,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건인, 2012년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화 등 굵직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왔다.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재단은 현재 국내를 넘어 아시아 및 세계의 청소년 인권과 평화 문화 확산을 위해 국제적 연대를 넓혀가고 있다. 최승연 기자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O Jesu Christe a cappella motet for mixed voices)

이번 달부터 예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고전성가를 매월 한 곡씩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고전성가(classical sacred choir song)란 음악사적인 고전시대(Classical era)나 오래된 것의 의미가 아니고, 작곡된 시간이 오래되었거나 얼마 되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예배에 성가대가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세상에 나온 시간이 어느 정도는 흐른 성가곡을 의미한다. 앞으로 음악사적인 시대 하나에 국한하지 않고 시대를 넘나들며 고전성가를 소개하려 한다.



박정우

곡을 소개하고 분석하기 전에 예배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의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예배에 대한 원론적인 면을 재고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다. 예배의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찬송, 기도, 헌물, 말씀. 앞의 세 가지 요소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하나님을 섬기는(service to God)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열린 예배란 것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사커 서비스(Seeker Service)란 것을 우리말로 의역한 것이다. 이를 직역하면 '구도자를 위한 서비스'가 되며, 이를 '구도자 예배'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 즉 아직은 예배자가 될 수 없는 자들

을 위한 집회라고 볼 수 있다. 예배자가 아니기에 이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달리 말하면 관심이 있어서 와서 보고 알고자 하는 자들이다. 이렇듯 전도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전도집회'라고 하는 것이 옳다. 예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설교자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 대언되는 것이지 설교자가 자기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배 찬송은, 특히 회중 찬송은, 한 마음 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송의 예물이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한 음성이 될 수 있는 음향 환경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적당한 울림이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찬송하는 나의 목소리도 들리고 회중 전체의 찬송 소리도 한 목소리로 들릴 수 있어야 한다. 기계음을 피해야 한다.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배자의 순수한 생소리(live voice)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파괴한다. 특히 마이크를 들고 찬송을 이끄는 리더를 둘러싼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느 나라든지 선교 초기에 회중 찬송을 리더 없이 부를 수 없던 시절에는 리더가 필요했다. 지금도 새로운 찬송을 예배에서 부를 때는 필요하다.

그러나 회중의 찬송소리와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지나치게 큰 소리는 안 된다. 리더의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소리조차도 회중의 소리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찬송은 기본적으로 음악이 아니다. 찬송은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을 담은 찬양이다. 한 소절 한 소절 그 의미를 이해하며 진정한 영적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회중 찬송은 회중 전체가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예물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다른 예배요 소들과 함께 이 찬양의 예물을 아벨의 예배로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설교자를 통해 예배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오늘 소개하는 고전성가 '오 예수 그리스도(O Jesu Christe a cappella motet for mixed voices)'는 르네상스 시대 사람인 베르켄(Jacobus van Berchem, ca. 1520-1580)이 작곡했다. 번역된 가사 전문은 이렇다:

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고통이 나를 덮을 때, 오! 주여, 은혜 주소서.

주님만 나의 희망이신 주, 오! 주여, 나의 주님.

공활을 주소서, 공활을 주소서, 공활을 배우소서, 내 주여!

가사의 내용은 공활을 배우소서 고통과 고난에서 구해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것이다. 예수의 그리스도(구세주)이신과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고 있다. 이는 통상미사문의 <키리에(Kyrie)>와 유사하다. 예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내용이다. 그리고 예배의 공적인 성격(여럿이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예배함)을 생각하면, 성가대의 찬양의 내용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 표현되어야 한다. '나'보다는 '저희'가 적합하다. 그래서 '나'를 '저희'로 바꾸어 찬양하기 바란다. 예배에서 성가대의 찬양은 이 곡의 내용처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 성가대원들의 마음이 결코 회중을 향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가대는 회중을 대표해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

님께 찬양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며, 회중도 마음으로 성가대와 함께 찬양하며 이 찬양의 예물을 드림에 동참하는 것이다.

현재 출판된 악보들은 현대식 악보로 누군가가 편집한(editing)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악보에는 마디줄이 없고 박자표가 아닌 비율사인을 가지고 있으며 기보법 또한 현대 기보법과는 다르다. 또한 현대판 악보에 있는 모든 악상기호들은 원본에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이 악상기호들은 현대 연주자를 위한 편집자의 제안이다. 지휘자는 가사 내용을 잘 이해해서 어떻게 표현할 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르네상스 시대에 그리했다. 박자표와 세로줄에 의해 부여되는 규칙적인 강약은 없어야 한다. 단어와 문장의 내용이 잘 들릴 수 있게 아티큐레이션과 프리이징을 해야 한다.

당시에는 탁투스를 써서 지휘를 했다. 현대화된 악보에서 4/4박자로 표시된 이 곡은 지휘도형을 4박과 2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2박 도형을 사용하는 것이 곡의 성격을 표현하는 데 훨씬 더 좋으며, 업 비팅(up-beating)을 사용하면 다운 비팅(down-beating)을 사용하게 되어 지휘를 지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곡을 어떻게 해석하고 연주할 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곡은 장조나 단조의 조성 구조가 아닌 교회선법의 하나인 프리지안 선법 구조로 되어 있다. 템포는 대략 이분음표 = 60 정도에서 가사의 내용에 따라 조금 조절을 하면 되는데, 가사의 내용이 가장 잘 표현되고 이해되는 템포를 설정한다.

마디 1-2에 있는 감탄사인 "오" 뒤는 끊고 그 다음 가사를 노래하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적용할 내용이다. 음악을 먼저 보지 말고 말을 먼저 생각하고 음악은 가사의 메시지 전달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루어야 한다. 특히 예배 음악은 그러해야 한다. 긴 음은 크레센도(crescendo) 하라. 이를 일반적으로 자연 크레센도(natural crescendo)라고 하는데, 여기서 크레센도한 후 데크레센도(decrescendo)를 할 지 아니면 음음표의 연속을 계속 크레센도할 지는 메시지 전달력을 고려해서 지휘자가 결정하기 바란다. 마디 2-4에서 테너가 다른 세 성부의 가사를 메아리처럼 모방하는 것을 인식하고 표현한다. 페르마타 표시는 늘임표로 해석하지 말고 숨표로 받아야 한다. 프레이즈 간에 약간의 공간을 두고자 한다면 약간의 늘임은 무방하다.

"고통이 나를 덮을 때, 오! 주여, 은혜 주소서" 부분의 쌍을 이룬 모방 기법(paired imitation technique)을 인식함이 중요하다. 마디 10의 소프라노와 마디 11의 베이스 쌍, 마디 12의 테너와 마디 13의 알토 쌍, 그리고 마디 14의 소프라노와 마디 15의 베이스 쌍 그리고 마지막 마디 16의 테너와 마디 17의 소프라노 쌍의 연속적인 모방을 인식하고 전체를 점점 강장도를 높여가며 연주하면 좋다.

마디 21부터 시작되는 "주님만"에서 완전 5도 음정을 두 번 쌓는 것을 주의하라. 순차적으로 알토와 베이스가 '도'를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가 '솔'을 소프라노, 테너가 '레'를 노래하며 두 번의 완전 5도 음정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는 주 예수님은 완전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마디 37부터 3/2 박자표가 있는데, 이것은 본래 비율사인으로 쓰인 것이 현대적 박자표가 아니었다. 이전의 두 개의 이분음표의 음가와 3/2 사인 이후의 세 개의 이분음표의 음가가 같다는 표시이다. 이것을 현대적 박자표로 해석해서 연주하면 지나치게 느려지게 된다. 마지막 종지는 피카르디 3도를 사용한 피카르디 종지이다. 테너가 베이스 근음인 '미' 위에서 '솔#'을 내어서 단조 분위기의 곡을 장 3화음으로 끝내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음색채를 재현하고자 한다면, 평균율로 조율된 피아노를 사용하지 말고 순정율적인 귀를 가지고 무반주로 연습하며 화음을 만들어야 하는데, 모든 완전 음정을 배운 관계 안에서 제대로 울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소리로 접근하지 말고 가사의 메시지를 찬양대원 모두가 이해하고 진정과 신령함으로 찬양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정우

총신대학교에서 지휘전공, 침례신학대학교 교회음악 대학원 목회음악 석사(M.Div. in C.M) 지휘전공으로 수학하고 도미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음악석사(M.M.)와 음악사/지휘를 복수전공하고 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에서 음악 역사와 문헌 (Primary emphasis), 오케스트라 지휘 (Secondary emphasis)으로 박사과정을 수학했다.

찬양인도자의 음악성 2 - 찬양인도에서 음악성이 중요한 이유



채운성

찬양인도자에게 음악성이 중요하다는 언급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질문해서 찬양인도에서도 음악성이 중요한 것일까요?

찬양인도사역 자체가 음악이라는 형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이 찬양인도사역을 예배사역이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기획과 실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역을 일컫는 것이지 단순히 찬양인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어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찬양팀사역을 호칭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 예배사역이라는 표현보다는 예배음악사역이라는 것이 더 어울린다는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것이 무시되거나 간과되는 안 될 부분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음악은 일종의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음표나 음정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태초에 오선지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모두 인간들이 보고 연주하기 편하도록 만든 인간들의 기준으로 정해놓은 약속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발전되고 진행되어 오선지가 되고 우리가 보는 음표와 음정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찬양인도를 할 때 준비하는 곡들은 거의 오선지 위에 음표가 있는 곡입니다. 그것이 그 곡을 쓰신 분께서 정해주신 약속이며 우리는 그 약속대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부르는

회중들도 하나님과 예배에 집중하여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찬양인도자와 찬양팀은 그들을 안내하는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일 찬양인도자와 찬양팀이 곡을 자신의 해석대로 불러서 회중을 헛갈리게 만들면 그것은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찬양인도자와 찬양팀은 회중들이 입을 벌려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익숙한 곡이라면 다르겠지만 처음 보는 곡, 익숙하지 않은 곡을 부를 경우에는 더욱더 음악적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음악적 완성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악보를 통해 주신 찬양의 이유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악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오늘도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의 열매가 되어 찬송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채운성

중앙대학교 성악과, 침례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M.Div. in C.M)에서 예배인도 및 기획을 전공하였으며, 제2회 대학생복음성가 경연대회, 제4회 CCM대회에서 입상하였다. 현재 서울은현교회 예배 및 음악감독,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 외래교수(예배인도, 예배기획)로 사역하면서 공동체적, 목양적 예배리더십을 통해 지역교회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KOEN**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며
First Mover로 나아갑니다.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과감한 행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OEN의 Clean & Smart Leader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new
renewable
energy

탐라해상풍력 전경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금난새 하와이 공연, 한인 이민 독립운동 기리는 3·1절 음악회

하와이 한인 이민 역사와 독립운동의 기억을 음악으로 조명...
아리랑TV 'K-Culture Minutes' 통해 소개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가 하와이에서 한인 이민자들의 독립운동 역사를 기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하와이 한인 이민 역사와 독립운동의 의미를 음악으로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연 현장은 아리랑TV 프로그램 'K-Culture Minutes' K-STAGE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무대는 금난새가 이끄는 뉴월드 챔버 오케스트라가 하와이 실내악 축제와 함께 31절을 기념해 기획한 공연이었다. 공연은 1903년 한국 최초의 해외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도착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했다. 당시 한인 이민자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며 번 돈을 모아 조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이들이 모은 성금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전달되며 해외 한인 사회의 연대와 헌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역사로 평가돼 왔다.

공연은 역사적 장소의 의미와 음악을 결합해 진행됐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항복 서명이 이루어진 전함 미주리호 선상 음악회를 비롯해 호놀룰루 곳곳의 역사적인 장소에서 무대가 펼쳐졌

다. 또한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던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서도 공연이 진행되며 한인 이민 역사와 독립운동의 기억을 음악으로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공연에는 다양한 음악가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앙상블을 선보였다.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지와 피아니스트 찰리 올리브라이트가 무대에 올랐으며, 하모니시스트 이윤석과 반도네오니스트 김중완, 기타리스트 지익환도 함께 참여해 풍성한 음악적 구성을 완성했다.

금난새 지휘자는 오랫동안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문화 교류 활동을 이어나온 한국 대표 지휘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이번 공연을 통해 음악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리랑TV는 이번 공연을 'K-Culture Minutes'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하며, 금난새와 뉴월드 챔버 오케스트라의 공연 현장과 함께 하와이에 남아 있는 한인 이민 역사와 문화적 의미도 세계 시청자



미주리호 선상에서 공연하고 있는 금난새 지휘자와 뉴월드 챔버 오케스트라 ©아리랑tv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서 금난새 지휘자와 뉴월드 챔버 오케스트라가 공연하고 있다. ©아리랑tv

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금난새 지휘자는 공연의 기획 배경에 대해 "최초의 한인 이민자들이 틀림이 모은 1분, 2분을 합쳐 독립운동가에게 전했다"며 "그 훌륭한 역사를 알리는 음악회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러 "하와이에 한인 이민자들과 독립 운동가의 후손들을 위해 연주하고 싶었다"며 이번 공연이 한인 이민 역사와 독립운동의 의미를 음악으로 전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최승연 기자

CGN, 교회 미디어 사역자 위한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 개최

3월 30일 구미상모교회서
실습 중심 교육... 음향·영상·
조명 등 4개 트랙 운영

글로벌 선교 미디어 CGN이 교회 미디어 사역자와 봉사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2026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실습편'을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3월 30일 경북 구미상모교회(담임 조준환 목사)에서 열리며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음향, 영상, 조명 등 4개 트랙 가운데 한 과정을 선택해 실습 중심 교육과 함께 전문가의 일대일 맞춤 코칭을 받을 수 있다.

CGN은 이번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를 올해 전국 단위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교회의 미디어 사역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실습형 아카데미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장비를 직접 체험하며 실무 중심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



다. 이는 유튜브 등을 통해 독학하거나 대규모 강의 형식으로는 접하기 어려운 현장 중심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음향 기초(아날로그부터 X32까지 왕초보 완전 탈출) ▲음향 응용(라이브 믹싱과 최신 트렌드) ▲영상자막(영상 중계 시스템과 프로프렌터 완전 정복) ▲조명(다세대 예배를 위한 조명 디자인과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한 과정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강사진으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회 미디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아영민 대표(콜미디어), 전주영 팀장(쥬다산에스알 음향기술연구소), 이한용 대표(교방닷컴), 윤주영 감독(예배인교회 방송실장) 등이 강의를 맡는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 참가비는 5만 원이며 단체 참여 시 4만 원이다. 참가자에게는 선물 패키지와 중식, 간식 등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은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 웹사이트(https://www.fondantmc.com/3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02-3275-9372로 하면 된다. 장지동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만나교회 40 하나님의 손길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좁은 문, 좁은 길)	00 신정현강단(김관선)(998회) 30 TV강단 감사드림(차영아)	10 강연쇼 톨(52회) 움직임 리셋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대구범아-이지훈 30 생명의 말씀 동안-김형준	20 GOODTV 오늘의 찬양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50 [말씀] 이재훈 목사(은누리교회)(666회)	00 생명의 양식 서산성결(김형배) 30 한소망 말씀 (최봉규)(161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사순절 묵상, 예수님은 누구신가(20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23회)
	7:00	00 CTS뉴스 20 생명의 말씀 계산재일-권오규 50 생명의 말씀 수지 기쁨-김원태	10 조정민 목사의 답답담 20 사람의 메시지 수월순복음(이요한) 50 비전설교 대한 (윤영민)	30 휴먼네컷(68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589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38회)	00 새중앙교회 주일예배실황 황덕영 목사
	8:00	20 내 영혼의 찬양 Praise 40 서정희의 매일성경(9회)	2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30 체인지 더 월드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211회)	00 하나님의 음성(183회) 20 CBS 성서학당 (김홍규)(4452회) 민수기 26강	00 복음강단 예버그리교회 김학필 목사 30 말씀의 창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영은 목사
	9:00	00 워너폴우먼(22회) 5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요나 2강 서정오 목사	30 행복한 쉼터 아델포이 (임동현)	0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540회) 4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4회) 50 구약의 세계로 (오십소)(24회)	10 새문개회소서(11031회) 최서형 장로	00 글로벌 신앙토크쇼 핫타임(49회) M871가 뭐라고... 40 믿음의 리액션(27회) 양명 1부
10:00	4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00 아버지 나의 아버지 2-7 이창우 박사	20 걸어서 이스라엘 시즌2(6회) 50 정춘찬양단(5회)	00 CBS NEWS 10 20 잘 믿고 잘 사는 법(327회) 40 목사님 금금해오(147회)	20 성자가 좋다(520회) 권아의 공금자 하나님을 만나다 50 사순절 묵상, 예수님은 누구신가(208회)	
11:00	00 7000미라클-예수사랑어기에 신은감리교회 / 박지현 목사 50 신앙예배시	00 사람의 메시지 전주완산 (유병근) 30 사람의 메시지 남서울중앙(피준진)	1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262회) 50 예수동행일기(14회)	00 율포원(718회)	00 소문난 성경교실(649회) 찬양예배 목사 여동 번째 7강 목중서신 1 : 구속사는 세속사 가운데 3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175회) 50 말씀의 창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	
오후	12:00	00 CTS뉴스 30 생명의 말씀 경산중앙-김종원	00 GOODTV 뉴스 30 행복한 쉼터 온유한 (박경숙)	1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4회) 2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은누리교회)(526회)	00 TV강단 오병이어(권영규) 30 오직예수 (이영훈)(931회)	20 복음강단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 50 비전메시지 바른교회 조정현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 풍성한-김성근 3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40 서정희의 매일성경(9회)	00 사람의 메시지 인영생명나무 (손영숙) 30 사람의 메시지 창신성결 (석진성)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323회) 20 [말씀] 윤길중 목사(영동포교회)(83회)	2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60회)	30 김재원의 광야예배(5회) 고통의 상징에서 희망의 징표로 지성호 지사
	14:00	00 [생방송] Calling GOD(2448회) 50 내가 매일 기쁘게 최현석 목사	00 GOODTV 특별간증 2025 감사특방 12세	00분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 [말씀]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332회)	00 말씀의 힘 우먼들(정준경) 30 새문개회소서(11412회) 배우 이자은	20 폴다보연(9회) 요셉 2 : 시간의 주인
	15:00	40 7000미라클-예수사랑어기에 신은감리교회 / 박지현 목사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라다금	00 [말씀] 김우준 목사(지구촌교회)(4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김기석)(44508회) 마태복음 21강	00 수영로교회 새물결 새바람 NEW WAVE 이규현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 신촌성결-이정익/박노훈	00 행복한 쉼터 소생 (강복걸) 30 행복한 쉼터 대구동신 (문대원)	00 하용주 목사의 창세기 강해(45회) 4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4회) 50 [말씀] 김형익 목사(벤살롬교회)(414회)	10 잘잘법 스페셜(2회) 배덕만 교수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7회) 50 하나님의 음성(182회)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49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23회)
17:00	00 생명의 말씀 새에덴-소강석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더 메시지 소진우 10 김대성 목사와 함께하는 기도순례대행전 부흥회 40 아베스의 기도	3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교회)(6208회)	10분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37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1997회) 50 영혼의 양식 성경동화(김주철)	00 말씀의 창 한빛교회 김진오 목사 30 말씀의 창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성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 소명중앙-김대성 30 TV찬양예배 만나교회	10 비전설교 대전태평 (한상현) 40 더 깊은 울림 마커스 워십	10 2025 온누리 사역축제 (지금 여기, 사도행전) - 선택의(10회) 50 2026 KOSTA WORLD IN JEJU(8회)	00 TV강단 성남빛나는(서학복) 30 신위의마를 예배 (김영준)(277회)	20 대한민국 복음이 담이다 30 말씀의 창 엘드림교회 양병태 목사	
저녁	19:00	2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30 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박설기(59회)	1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50 2026 KOSTA WORLD IN JEJU(8회)	20 만나H(188회) 30 TV강단 예배(정은주)	00 비전메시지 광주세성교회 김시은 목사 30 스페셜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417회) 김하나 목사
	20:00	30 생명의 말씀 강남중앙-장찬영	10 여주복 목사의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 40 훈민복음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THE NEW 하늘빛항기(21회)	00 생명의 시대(32회) 50 CBS 교회소식(1041회)	10 비전메시지 기쁨의교회 박진석 목사 40 복음강단 새문개회 황형택 목사
	21:00	00 메신저스 남민 목사 30 서정희의 매일성경(9회) 50 CTS뉴스	10 GOODTV 특별기획 폐허속에 갇힌 천년의 시간 40 GOODTV NEWS	00 갈보리교회의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김홍규)(4452회) 민수기 26강 50 성경골프 이것이 금금하다(44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112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요나 2강 서정오 목사	00 아버지 나의 아버지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30 송성! 은혜로군(56회)	00 CBS NEWS 10 20 CBS 스페셜 제19차 한국교회봉사단 연석이사회 및 정기총회 (45회)	0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176회) 20 소문난 성경교실(646회) 장찬영 목사 여동 번째 4강 목중서신 1 : 신자기도 이기셨다 : 신자기도 이기셨다 50 리버리즈 워십
	23:00	10 [CTS믿음의 명작] 별세목회자 이종표 목사의 죽어야 신다 제8부 별세의 헌신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노크노크	10 RT, 캔달의 말씀과 성경(238회) 4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4회)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6회) 30 하나님의 음성(183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38회)	00 폴다보연(9회) 요셉 2 : 시간의 주인 4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50 사순절 묵상, 예수님은 누구신가(208회)
	24:00	00 Calling GOD(2448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훈민복음 40 더 깊은 울림 한성 워십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방주타GO(2회) 4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화요성령집회-(11회)	10 새문개회소서(11031회) 최서형 장로	00 강연쇼 톨(52회) 움직임 리셋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00	00 더 초존 시즌5(더빙)(4회) 15세	00 류영모 목사의 멋진 이야기 10 조용기 목사 명설교	00 [말씀] 김우성 목사(영락교회)(249회) 4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320회)	0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61회) 40 말씀의 능력(전태성)(573회)	00 고통겨 크리스천 토크 토크쇼 : 치욕(46회) 일상 속 성경 용어 베스트 5 30 성자가 좋다(520회) 권아의 공금자 하나님을 만나다
	2:00	10 7000미라클-예수사랑어기에 신은감리교회 / 박지현 목사	10 매일 주와 함께	2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413회)	30 TV강단 강남중앙침례(최병락)	00 우리 함께 찬양해(1회) 여주복동교회 1부 40 김명선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168회)
	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요나 2강 서정오 목사 5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1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R.T. Kendall's Word & Spirit(212회) 3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851회)	00 율포원(717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박중순 목사 30 내 영혼의 찬양	00 힐링스토리 1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영안자로 (양병희) 5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236회)	00 CBS 성서학당 (배요한)(4451회) 창세기 18강 50 CBS 교회소식(1041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15회) 김대성 목사 30 성자가 좋다(520회) 권아의 공금자 하나님을 만나다